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illegible]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稀有의大旱魃

恒久的災害對策樹立이必要

一

昨冬以來 不調를 繼續하던 天候는 昨冬의 酷寒과 過多한 春雪에 뒤이어 又復 稀有의 大旱魃이 朝鮮에 襲來하야 바야흐로 移秧期에 當面한 農村의 大騷動을 자아내고잇다。數日前의 甘雨消息도 西北一帶만에 끈치고 朝鮮의 穀倉인 中部以南의 三南一帶에는 아직도 乾天이 繼續되는 형편이어서 飮料水涸渴等의 一般生活의 不安은 勿論、移秧不能에 依한 今年農形에 對한 憂慮로 不安焦燥에 싸인 農民은 모다 仰天祈雨로 送朝迎夕하는 悲慘한 情景이며、旱魃騷動은 直接 間接으로 米價에 作用하야 連日昂騰하는 高米價는 또다시 一般大衆의 生活을 雪上加霜으로 脅威하고잇다。

二

旱魃、洪水를 勿論하고、天災地變은 말하자면 自然力에依한 不可抗力的現象이다。今日의 高度로發達된 科學의힘으로써도 이를 防止하고 이에서 回避할수 업는지라 偉大한 自然力아페 다시한번 人類의 智不足、力未及을 歎息치안흘수업거니와、所謂文明이란 一言而蔽之하면 人間對自然의 接觸過程에잇서서、人間에依한 自然征服、人爲的作用에依한 自然的素材의 人間生活에의 有用化를 意味하는것이니 自然力을 닥치는데로 利用驅使하야써 自然의災害를 防止하고 또 克服할수잇는境地에 到達하여야 비로소 文明이 完成過程에 들어갓다할수잇슬것이다。그러나 今日의 文明이 아직 그境地에 到達치못한以上 그러한것은 遙遠한 將來에 屬하는바이니 災害를 目前에두고、人間의 微力이나 科學發達의 未及을歎하여도 부질업는일이다。그러나 지금의 人間의 힘으로도 萬若 雨順風調한때에 災害에對한 準備가 잇섯다면 이를 防止하기는 困難하더라도 克服할 道理는 얼마든지 講究햇스리라고 미더진다。人間의 懶怠와 爲政者의 用意未到한 責任은 亦是免치못할것이다。

三

如何튼 災害에 直面한 우리로서는 數萬言을 費함보다는 차라리 未及한다하더라도 이에 對한 緊急對策을 講究하야 善處함만 갓지못할것이다。現在로는 아직 全然 絶望이 아닌以上 雨不雨兩條의 準備를 一般農家에서는 해야하겟거니와 그보다도 當局은 現實에 立脚한 對策과 萬一의 境遇에 備할 對策을 세울 必要가 잇슬것이니 即 첫재로는 地域的으로보아 稻作이 絶望된 地方에는 迅速히 代作을 奬勵하야 代作에對한 晩時之歎이 업게하는同時에 或 寡雨로서도 稻作이 可能視되는 地方에는 貯水池設備 發動機裝置等에依한 灌漑及水의 方途를 講究하는等 非常時對策을 세워야 할것이오、그래도 全然 絶望인때에는 即時 救濟事業에 着手함으로써 災害에因한 人民의 塗炭之苦를 救濟할 覺悟까지도 가저야할것이다。이것이 微弱하나마 旱魃에對한 現實的對策이다。

四

그러나 우리는 旱魃對策을 旱魃을 當한 今日에 와서 講究하는 臨渴掘井의 愚策으로서는 언제어느때 또 이런變을 當할지도 豫測키도 困難한바이니 政當局으로서는 近來에 [illegible] 遭過하다시피하는 災害에對한 恒久的對策을 樹立하여야할 必要를 痛感한다。朝鮮에는 洪水가 頻發하다는意味에서 植樹奬勵、砂防工事를 爲始하야、河川整理工事等 水害方面에는 相當한 考慮로서 施設에 努力中이나 旱魃對策으로는 水利組合(?)을 내노코는 이러다할施設을 發見키 困難하다。이것이 旱魃을 洪水以上으로 輕視케하는 一要因도 되는것이다。現在의旱災가 如何한 結果를 나타낼지는 未知라할지나 今年의經驗으로보더라도 當局은 將來 이러한 方面도 考慮하야 平常時에잇서서 災害時에 備할 施設을 準備的으로 行하야 不意의變을 當하더라도 大禍에 이르지안코 極小限度에 끗칠수잇게할 對策을 樹立하는것이 賢明한 措置일것이다。

英外交委員會 對伊制裁抛棄決定

制裁解除에依한政府非難으로 이든外相을罷免?

【倫敦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十五日夜 外交委員會를 開催하고 볼드윈首相司會下에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案의 善後策에 關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國際政局의 現狀에 鑑하야 마츰내 制裁案을 抛棄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制裁抛棄의 內容은 傳하는바에 依하면 如左하다

一、聯盟各國이 伊太利政府에對하야 制裁行動을 取한데도 不拘하고 伊太利政府는 完全히 遠征工作의 目的을 達하고 에디오피아帝國을 征服하야 그結果 制裁行動의 基調가되는 本來의 客體를毁失하게되엿다

一、單히侵略行動牽制의 目的으로써 制裁案을 繼續하는것은 國際政局의 現狀에서는 極히 危險하다 또 다다넬스海峽再武裝의土耳其政府의 要請에關해서는 伊太利政府의 協力을 確保하는것이 絶對必要하다

一、以上의 見地에 基하야 英國政府는 制裁案을 구지 固執하지안코 國際聯盟이 制裁案撤回를 決定할 境遇에는 이에同意할것 그런데 英國政府에서는 다시十七日 全員閣議를 開催하야 外交委員會의 勸告에 基하야 制裁案抛棄를 正式決定할터이다

【倫敦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가 國際聯盟에 關한 綏理論을 放棄하고 國際政局의 現狀에 順應한다는 名目下에 原則上 制裁案放棄를 決定한結果 伊에兩國間의 紛爭開始以來 終始强硬論을 堅持하고閣議를 牽制하여온 이든外相의地位는 자못危險視되게되엿다 로자미廳等은 떼일리메일紙等의 新聞은 國을 總動員하야 벌서부터 이든外相의 攻擊論戰을開始하야『失政의 首魁를 罷免하라』고 떠들고잇슴으로 若冠大英帝國大臣의 印綬를帶한 이든外相도 制裁案解除와 때를가리하야 進退를決定하지안흘수 업는難局에 逢着하게된것이라고觀測된다 (사진은 이든外相)

瑞典內閣更迭

【스톡홀름十五日發同盟】社會民衆黨首領 한손氏를 主班으로한 瑞典內閣은 恩給法案 不成立의結果 總辭職을斷行하고 國王그스타프五世陛下는 農民社會黨 불손氏에게 對하야 後繼內閣組織을 委囑하얏다 불손氏는直時 各政黨에 入閣交涉을 開始하야 擧國一致內閣組織을 期하고 極力奔走中이다

佛蘭西新內閣도 制裁撤回에贊成

【巴里十四日發電】英國의 制裁撤廢의 形勢는 드듸어 노파지고잇는데 對하야 佛國에서는 一般으로 크게 이를 歡迎하고 速히 그것이 實現되기를 期待하고잇다 特히 右翼諸新聞은 最初부터 制裁에 反對이어든만큼 此際에 佛國이야말로 制裁撤廢의 이니시어티브를 取할것이라고하고잇다 左翼系諸新聞은 이問題에 關하야 아직 沈默을 지키고잇스나 制裁의 意義가 全혀 消滅된今日 이것을 固執할 意向이 업는것은 勿論이어서 問題는 制裁撤廢를 如何한 理由로 主張할는지에 잇다、共産黨이 歐洲의 勢力均衡의 見地에서 制裁繼續에 反對하고잇는것은 注目할만하다。如何튼 新內閣이 이데올로기의 相違로 伊太利에 對하야 新强硬態度를 取하는일이 업슬것은 明白하야 에디오피아問題가 今日과가튼 解決을 보게된것은 라발外交의失敗에 基한것으로 지금으로는 어떠케도 하기어려운바 이는 民衆戰線內閣의 關知할바아니다 라는 態度에서 制裁撤廢에 贊成하는데 다만 今後 如斯한事件의 再發을 防止하는것이 新內閣의 責任이라는 見地에서 聯盟의强化、地方的相互援助條約의締結 英佛伊三國協調再現에 向하야 나아갈것으로 보고잇다

伊前外務次官 駐米大使로決定

【羅馬十五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前外務次官스비치氏를 華盛頓駐在大使에 任命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하는데 當事者스비치氏는 維也納으로向하야 旅行하는途中 右任命을 接受한結果 十五日午後 직메릉으로부터 急遽羅馬에 歸還하엿다

勞働會議委員會 四十時間制可決

但製鐵界에局限함

【쥬네브十五日發同盟】國際勞働會議의鐵委員會는 十五日午後製鐵鋼業界에잇서서 四十時間制를 採用하자는 提案에對하야 審議를行한結果 二十一票對十二票로 同案을可決하엿다

制裁施行中에는 國際會議에不參

伊太利政府方針決定

【羅馬十五日發同盟】土耳其政府의 다다넬스海峽再武裝問題에關한 몬트로會議는마침내來二十二日에 開催로豫定인데 로잔느條約締約國의 一員인 伊太利政府가 會議에 出席할는지안할는지는 聯盟의對伊態度如何에 依하야 決定되리라고 解釋된다 特히伊太利政府는 聯盟從來의 態度方針을 淸算치안는 限聯盟을 中心으로 如何한 會議에나 協力치안흘方針이라고 解釋된다 右에 對하야 伊太利政府當局은十五日午後 非公式으로 左와如히 述하엿다

聯盟이伊太利政府에 對하야犧牲을 肯하고 過誤를 淸算치 안는以上 伊太利政府는 歐羅巴의 如何한 會議에나 協力할 意思가업다 右言明으로明白한바와如히 對伊制裁를撤回치안는限 伊太利政府는 몬트로會議 聯盟理事會 緊急聯盟總會의 어느것에나 出席치안흘意向이라고 解釋된다 一說에 依하면 伊太利政府는 聯盟에對하야 文書를 通達하고 伊太利政府에 對한侵略의非難의 根據업는所以를 宣明할意向이라고解釋된다

須磨總領事神戶發

【神戶電話同盟】五月末부터 歸

川越駐中大使 十五日東京發赴任

【東京電話同盟】新駐中大使川越茂氏는 十六日午前九時 東京發列車로 西下赴任할터인데 十五日 午後四時 官邸에 有田外相을 訪問하고 日中兩國國交調整에 關한 日本政府의 最後的訓令을 接受하는 同時에 新舊大使兩者의間에 重要事務引繼를하기로되엿다 川越大使는 伊勢大廟桃山御陵에 參拜하야 就任奉告를하고 二十日 神戶出帆淺間丸으로 一路上海에 向할터이다

佛蘇協力에對抗 三國同盟을締結

獨、波、芬巨頭가協議

【伯林十五日發同盟】佛蘇兩國이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야 歐洲政局의 支配를企圖하자 獨逸、波蘭、芬蘭各國政府는 共同된利害關係에서 漸次共同戰線을 펴는傾向을 示하고잇는데 特히芬蘭政府部內에는 東歐三國同盟 結成論이擡頭하야 芬蘭共和國獨立의祖 만나하임元帥는 兩三日以內에 伯林을訪問하고 히틀러總統과 會見한後 同盟案을提示할 意圖라고傳한다 同時에波蘭外相베크大佐도 伯林에 進出하야 三巨頭가 鼎座한後 蘇聯邦의進出에對하야 共同對策을決定할터이라고 傳하는데 會議가 相當한成果를 거둘境遇에는 히틀러總統의腹心 괴링航空相이 월소우에赴하야 波蘭政府와 具體案에關하야 折衝을 遂할豫定이라고도傳한다

이番엔白耳義서罷業

【브랏셀十五日發同盟】白耳義炭坑夫組合은 勞銀一割增加 四十時間勞働制及有給休暇制確立要求를 드러 十五日朝來 罷業을開始하엿는데 爾後罷業은 各地에 波及하야 아멜스港에서는 獨逸勞働者團이罷業을 開始하엿고 리에주市에서는 電燈會社從業員이 罷業을 開始하엿기때문에 十五日夜는 全市가全然 暗黑街로 化하엿다 其他앙크렐、우크렐、룩셈브르各地에서는 石材、炭坑、金屬、電氣工場의各部門에 亘하야 罷業이 漸漸擴大되는 形勢를 示하고잇다

日濠關稅交涉과 日本의根本方針

【東京電話同盟】日濠關稅交涉은 十五日 村井시드니總領事와 가레트關稅條約大臣과의 사이에 行하야 交涉이 好轉되엇다는 報道가 行하고잇는데 十六日 正午 外務當局은 關稅交涉에 對한 帝國政府의 根本方針을如左히 說明하엿다

濠州政府가 日濠會商의 途上에서 突然 對日關稅를 引上한것은 極히 不當하므로 政府는 이에 對抗하야 通商擁護法發動을 決意한것이다 濠洲政府가 그不當關稅를 撤回하지안코 이 新事態에 잇서서 對日交涉을 開始하려함과如한것은 끗까지 承認할수업다 政府는 濠洲政府가 먼저 對日不當關稅를 解消하고 白紙의 立場에서 通商調整交涉을 開始하기를 希望한다 그러치안는限 斷乎 旣定方針에따라 通商擁護法을 發動하야 最後까지 對濠通商抗爭에 邁進할터이다

對滿移民問題

東京에서協議

對滿朝鮮人移民問題는 鮮滿拓殖創立을 압두고 對滿國策見地에서 愼重히 根本的으로 究明할 必要가잇서서 來六月下旬東京에서 外務省 對滿事務局 陸軍 關東軍 朝鮮總督府의 各關係官이 參集하야 朝鮮人移民統制에 關하야 協議할터인데 이에앞서 十八日午後三時 關東軍의 竹下第三課長 朝鮮軍의 入京하야 總督府外事課 深堀參謀를 加하야 同問題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고 相川外事課長同伴으로 十九日夜 渡東하기로되엿는데 關東軍의 對滿移民에對한 見解와 總督府側의 希望에 關해서는 自由移民에 關하야 若干의 意見相違가잇서서 推移를 注目中이다

佛、兩委任統治領 獨立政府를承認

『시리아』『레바논』兩領域에

人民戰線內閣의功績

【巴里十六日發同盟】佛國政府는 過般 시리아及 레바논兩地方의 亞剌比亞代表를 招致하고 兩委任統治의 統治方式을 數次에 亘하야 討議한結果 兩領域은 聯盟規約第廿二條 第四項에依하야 自立할수잇는 自治에 到達하엿다고 斷定하고 兩領域의 獨立을 承認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佛國政府는 十六日國務會議에서 兩領域의 獨立을 正式決定하야 亞剌比亞代表間에 同盟條約을 締結할터이라고 [illegible]되다 右條約의 要旨는如左하다

一、佛國政府는 시리아及 레바논兩委任統治領의 獨立을 承認한다

但 兩國은 佛國政府와의사이에 同盟條約을 締結하고 聯盟에 同盟國의 地位를 維持할

一、獨立兩國內의 一定地域에 佛國軍을 駐屯케하야 少數民族及 兩國人保護의 特殊任務에 當케함

一、兩國政府間에 共同諮問會議를 設置하고 關稅其他經濟上 利害共通의 諸懸案을 處理케함

但 會議의 議長은佛人으로함

一、佛國政府는 兩國兼任의 大使一名을 派遣함

一、同大使는 시리아의 首都及 레바논의 首都에 兼任駐劄케함 (사진은 블름首相)

蔣氏、衡陽部隊에 進擊中止를命令

廣東側과折衝할次로

【上海十六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十六日 湖南省衡陽에잇는 中央軍에 對하야『進擊을中止하고 武力衝突을 하여서는안된다』는 進擊中止命令을 發하엿다 右는 目下 張發奎氏로하여금 南角에서 西南側과 折衝시키고잇기때문에 그結果를 보아 廣東側과 平和裡에 解決하고 廣西側에對해서는 結局 武力解決을 斷行하려는 準備라고 보고잇다

湖南中央軍配置

【廣東十六日發同盟】西南軍當局入電에 依하면 湖南의 中央軍配置는 如左하다。

一、左翼指揮 衛立煌麾下의 羅林、鄒洪의 兩氏를 粤漢鐵路에 沿하야 廣東省境에 向케함

一、右翼指揮 陳繼承의 第一軍三個師團을 衡陽으로부터 廣西省境에 向하야 各各 進發케하고 第二軍에는 中央軍의 最精銳 胡宗南軍三萬을 配置하고 이에 徐源泉軍 三、四個師團을 同豫備隊로한 關麟徵軍 잇서서 山西駐屯의 第二軍도 十五日來 平漢線으로 湖南에 移動中이다

또 蔣介石氏는 福建 安徽 湖南 貴州四省의 中央軍側의 對西南軍事行動을 綜合하야 連絡作戰統一을 圖하기 爲하야 錢大鈞氏에게 命하야 少將以上의 軍官을 網羅한 大參謀團組織에 着手케하엿다고 傳한다 溫州에 集結된 浙江省中央軍은 이미 海路로부터 福建南部에 輸送되고잇다

人民權利尊重 議會制度樹立

蘇聯憲法草案全文 ❷

第三章 聯邦國家權力의最高機關

第卅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最高機關은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웨코우니・쏘베트』로함

第卅一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는 憲法第十四條에 基하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에 歸屬하는 一切의 權利를 行使함 但 憲法規定에 基하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各機關 即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人民委員會、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人民委員部의 權限에 歸屬하는 事項을 除함

第卅二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立法權은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에 依하야 排他的으로 實現됨

第卅三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는 聯邦會議及民族會議의 兩院으로 成立됨

第卅四條 聯邦會議는 人口卅萬에 對하야 代表一人의 比로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市民에 依하야 選擧됨

第卅五條 民族會議는 聯邦共和國과 各聯邦共和國으로부터 十名 各自治共和國으로부터 五名 各自治州로부터 二名의 比로 選出된 各自治州勞働代表會議에 依하야 任命된 代表로써 組織함

第卅六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의 任期는 四個年으로함

第卅七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兩院 即 聯邦會議及民族會議는 平等한 權限을 享有함

第卅八條 立法發案權은 聯邦會議及民族會議에 平等히 歸屬함

第卅九條 法律案은 最高會議兩院에서 各單數多數決에依하야 採擇된 境遇에 承認된것으로 思惟됨

第四十條 最高會議에依하야 採擇된 法律은 議長及 쏘베트最高會議幹部部書記長의 署名으로 公布함

第四十一條 聯邦會議及民族會議는 同時에 開會閉會하기로함

第四十二條 聯邦會議는 聯邦會議議長及 副議長二名을選擧함

第四十三條 民族會議는 民族會議議長及 副議長二名을選擧함

第四十四條 聯邦會議及 民族會議議長은 當議院의 議事를司會하고 院內의 諸種規定에關하야 責任을 負함

第四十五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會議兩院協議會는 聯邦會議議長及 民族會議議長에 依하야 交互司會됨

第四十六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는 兩院이 모다 年二回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에 依하야 召集됨、特別最高會議는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에 依하야 그責任으로、或은 聯邦共和國中의 一國으로부터 要求가 잇는境遇에 召集됨

第四十七條 聯邦會議와 民族會議兩者間에 見解가 一致되지안을境遇에는 兩院同數로서 任命한 妥協委員會에서 이를 裁定함、妥協委員會가 決定에 一致되지안는때 或은 右決定이 兩院의 어느한편을 滿足시키지못할 境遇에는 各院에서 再審議에 付함 兩院이 마츰내 決定에 到達치 못할境遇에는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最高會議를 解散하고 새로 選擧를 執行하기로함

第四十八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를 選任함、幹部會는 議長、副議長四名、幹部會書記長、幹事會員三十一名으로써 構成됨、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그全活動에 關하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會議에對하야 責任을 負함

第四十九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의 權能은 如左하다(A)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의 召集(B)適切한 訓令을 發하야 現行法制를 解釋함(C)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憲法第四十七條의 規定에基하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를 解散하고 또 新選擧를 執行함(D)自身의 發案에 基하야 或은 聯邦共和國中 一國의 要求에 基하야 人民投票를 執行함(E)쏘베트社會主義各共和國人民委員會議의 決定及 命令이 法律과 合致되지안흘境遇에 以上의決定 乃至命令을 棄却함(F)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의閉會中 同會議의 義務를 代行하고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人民委員會議議長의 申請에 基하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人民委員을任命함 이境遇에는 事後에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의 承認을要求하기로함(G)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勳章의 授與(H)特赦大赦權의行使(I)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國防軍最高司令의 任命及更迭(J)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의 閉會中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이軍事的攻擊을 바들境遇의 宣戰布告(K)全國的 或은 局地的 動員令의公布(L)國際條約의批准(M)外國에 派遣된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全權代表의 任命及召還(N)諸外國外交代表의 信任狀捧呈受理

第五十條 聯邦會議及民族會議는 信任狀審査委員會를 選任하야 各院代表의 信任狀을審査함。兩院은 信任狀審査委員會의申達에 基하야 信任狀의 確認或은 各個代表의 選擧無效를 決定함

第五十一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는 必要잇슬境遇에는 如何한 問題에 關해서도 調査、審査委員會를 設置함을得함 一切의 公共機關及 官公吏는 此等委員會의 要求에 應하야 必要한 資料及 書類를 提供할 義務를 負함

第五十二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代表는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의 合意업시는 訴追或은 逮捕함을不得함 但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閉會中은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最高會議幹部會의 合意업시는 訴追逮捕함을 不得함

(第五十三、四、五、六條略)

米穀統制法實施

朝鮮에는無影響

昭和八年 米穀統制法이 施行된前後의 日本內地 朝鮮二十三取引所에對한 影響에 關하야 總督府商工課의 調査에 依하면 日本內地는 昭和七年에 比하야 十年에는 買賣高一三、九四三、二〇〇石 即六割三分의 減少를示하야 統制法의 影響이 顯著한바 잇는데 이에對하야 朝鮮은七年은 十年에 比하야 一三、一六七、一〇〇石 即二割三分의 減少에 不過하다 그리고 今年四月末의 日本內地 朝鮮比較를보건대 日本內地는 一五、六三九、七〇〇石 朝鮮은 一一、〇一八、六〇〇石으로 거의取引高가 同一하고 最近 仁川의 賣買高는一日平均二十五、六萬石으로 日本一의 成績을 示하고잇다 이數字로 보드라도 日本內地의 米穀取引所의 衰微狀을 如實히證明하는同時에 朝鮮의 取引所에는 그다지큰 影響이 업슬것을 立證하고잇다 (單位石)

	日本內地	朝鮮
七年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十年	[illegible]	[illegible]

明年度豫算槪算 提出期日을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六日定例閣議에서 昭和十二年度 一般會計總豫算及 特別會計豫算各省槪算要求提出期日을 左와如히決定하엿다

一、一般會計總豫算은 八月十日

一、特別會計는 八月三十一日까지 모다 大藏省主計局에 提出할것

夕刊後市況 十六日

◆大阪 短期 前引◆
大新 七二〇〇 (不變)
東新 一五八二〇 (五〇高)
日産 七一〇〇 (一〇高)
鐘新 一三三六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〇〇〇〇 先限 七〇三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八五〇 先限 五七一〇

六月十五日より六月二十三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女は何故怖い
文化映畫
▲植物の神秘
▲お夏淸十郎
浪花館

六月十五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篇常週間
每日三回晝夜興行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續映
夜間八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아ー빙그、가밍구스氏監督
大名篇 나이트俱樂部
메ー요메숫드孃 스기ー트가라가氏 主演
現代劇 孤島の勇者
主演 {東鄕久義氏 水谷蘭子孃}
海上生活로부터 집으로 도라와 金때그 안해는 情夫와 가티 家財를 갓추엇슬때 쏠쏠한것을 참지못하야 그는 海賊船員이 되여 가지고 港口로 단이며 橫行하엿다 이때 마치 學生生活을 맛치고 海上生活을 希望하고 海上에 나온 一靑年과 大格鬪는 展開되엿다 猛鬪劇
유니버살社作品無聲
大活劇 巨人突貫
主演 월리암항장氏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 二七番
第一劇場

六月十五日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콜럼비아超特作全發聲日本版
월이암웰氏監督作品
十三日의 殺人
아돌프망쥬氏 그래라잇젤孃 主演
絢爛! 豪華! 愛와美가 亂舞하는 曲馬團衣裳의 血痕! 十三日夜! 暮은 열렷다 黑影의 恠奇와 들니는 慘慘聲! 探偵의 追跡을 避하려는 最後의 曲藝…에덜은 曲藝團의 로맨스……
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版
西部大活劇 荒武者三銃士
監督・로렌스테라만氏
主演・템맛코이氏
참이 映畫은얼마나 痛快하게 보실수 잇는것!
大都映畫社超特作サウント版!
赤誠心
監督…吉村操氏
ハヤブサヒデト氏主演
黃金町 桃花劇場 電話 二三番

斷然名畫史上에 新記錄篇!
六月十四日부터超特別大封切!
MGM超特作祭級日本版
巨匠리・크래스비아리氏 主演
大天才 작키・쿠파君
猛獸師의아들
流浪의旅! 名聲도地位도 모두엇도내子息을 그리는 마음! 合해는 아모效果가 업슷다 猛獸의 怒號와 奔하는 曲馬團의 哀想悲歡의 敍情과 父性愛高唱의 萬代不朽의名畫
유社超特作日本版
에드와ー드루도의그氏大作
少年Gメン
훈라키ー다ー로ー君 비리ー바랏도君 主演
軍心天國! 이淳朴한곳에서 世界一의 富豪少女를 中心으로 짜내는 장그의 活躍과 Gメン의 猛襲逆襲을 그려 興味百%!
大都映畫社特作現代劇
太田辰三郞監督作品
伴淳三郞 久野あかね主演
嫁とり日記
黃金町 電光 三九五
優美館

老大한道路網實施 住宅地帶를攪亂

舊市內는新住宅은潛影 放射的으로新市內에逐放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令)에의한 도시계획(都市計畫)사업의대부분은 도로망(道路網)의 완성에잇는데 도로망의 완성이란것은도시의 거주가능(居住可能)한면적을 도로로 만드는만큼 도로의 확장에의하야 도로의면적이늘어나가면 늘어나갈수록 주택이 들어안즐곳이 좁아지게되여거긔에는 당연히 주택문제가겹처들어간다 그런데 지난사월이래적용을본 시가지계획령에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경성부서는 압흐로얼마나한면적의 도로를 더필요로하는가하는것은 일반 주택문제와아울러서 근교의 토지경과와관련하여 극히 중요성을 가지고잇다 이제경성부의 조사에의하건대 경성부내의 도로 총면적은 구시내가 이백륙십만평방미돌(平方米) 신편입구역내가 팔십일만평방미돌 합계 삼백사십이만평방미돌밧게아된다 그런데 현재의 대경성주거가능지역의 총면적구천이백만평방미돌에 비하면불과삼분오리(三分五厘)밧게 안되고 구시내구역내의거주가능면적 이천사백구십만평방미돌에비하면 일할에불과하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교통、보안상 필요한도로의면적은 거주가능면적의 이할오분은되여야한다는것으로 대경성의도시계획도 도로의면적을 거주가능면적의 이할오분을표준으로하고잇슴으로 현재의구시내구역내의도로면적도 현재의면적인 이백륙십사만평방미돌의일배반인 약삼백륙십여만평방미돌의 도로를 더만들도록 되여잇다는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신편입구역에도 그만큼 도로가 더잇서야할터인데 이가티 현재의구시내구역에도 현재보다 일배반이나 도로면적을 잡을만큼 도로망을확장케되다면 잇는집도만히 헐리게될터임으로 전체의게산상으로는 금후구시내구역에는 신건축이 거이업시되고 인구도 구구역에서 신구역으로 떠몰려나가지안흘수업스리라고 보지안흘수업다 이와가튼계산으로한대도 도시계획의리상으로는 한사람압 삼십평인것이 금후삼십년에 경성인구가 일백십만으로된다면 한사람압해 겨우 이십오평밧게 더안되는 불건강도시가될념려가 잇다고 한다 결국의문제로는 이가튼 방대한 도시계획의 사업은 금후 토지소유관계에는 중대한 변동이 오게될것이고 동시에 소지주와 세민계급의 토지소유나 가옥소유는더욱 어렵게될모양이다

袋地에집을짓고 道路通行으로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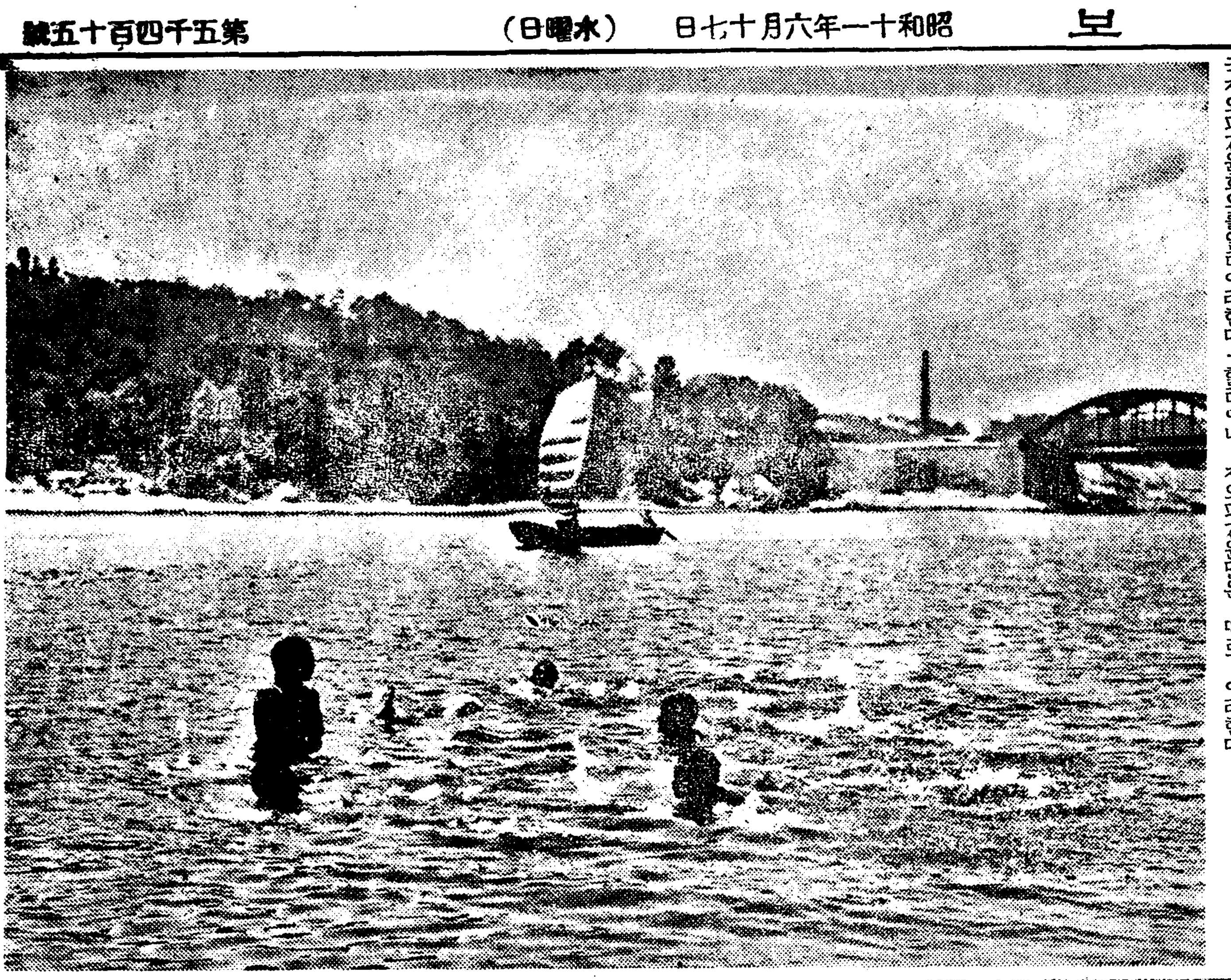
都市에서나볼수잇는珍訴訟

도회지가 아니고는 볼수업는 진소송—— 부내 인사정(仁寺町)사십오번지 조옥절(趙玉節)은 장사정(長沙町)백삼번지의 일호 김옥절(金玉節)을 상대로 십륙일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통행권(通行權)을확인하라는 소송을 제긔하엿는데 소장내용을보면 원고는 장사정백사번지의 일호에다 이십일평을 사가지고 작년시월오일에 공사를 시작하야 이천구백여원공비를 드리여 집을지어 작년십이월십륙일에 준공하엿는데 이터는 소위대지(袋地)로서 공로(公路)로나가려면 그곳백사번지의이호와 백오번지와 및 피고소유백삼번지의 일호를통과하여야 되는데 피고는 원고가 집짓는 것을 두어달이나 보고서도 아모말도안타니 작년십이월이십일에야 자긔집압을통과하지말라고하며 일부러대문을내다세우고 철조망(鐵條網)을처서 원고의통행을방해함으로 원고는 면번이나 통행권을 인정하라고 간청하엿스나 피고는완강히거절함으로 할수업시 소송을하게되엿스니 통행권을 인정하라는것이다

在外朝鮮人의取締强化를協議

警察部長會議뒤이어派遣員會議

각도경찰부장회의는 오는이십구일부터 총독부에서 삼일간 열리게되엇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이회의가 끗나는 다음날인칠월이일에 총독부에서 경무국재외파견원회의를열터이라한다 재외파견원은 상해(上海)북평(北平)봉천(奉天)신경(新京)합빈(哈爾濱)동경(東京)등각지에 파견되어잇는데 경찰부장회의에서는 경찰관계의일반문제를 협의할터이나 재외파견원만은 따로히모혀서 불원실시할 특히외사경찰확충과동시에 재외파견원과의 긴밀한련락의필요 또재외보종조선인의 취체강화등의 문제를중심으로 구체적협의를 할터이라한다



버리와라! 江上에등실! (昨日漢江에서)

平津地方에도 和文電報取扱

지난일일부터 조선서 중국천진(天津)과의 사이에 일본문전보를 취급하고잇는데 십오일부터 북평(北平)에도 역시 일본문전보를 취급하기 시작하엿다 그료금은 한말(一語)에 구십산팀으로 일본돈으로 계산하면 륙십삼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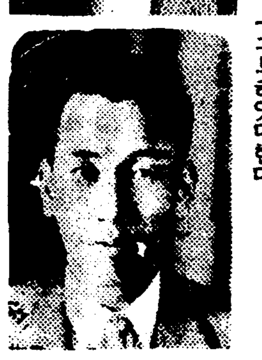
忠共協議會巨頭 盧明愚永眠

卅七歲를一期로

【扶餘】 한동안 충남공산주의협의회(忠南共産主義協議會)거두로 활동하든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扶餘郡窺岩面合松里)로명우(盧明愚)(三七)는 소화팔년구월에 충남경찰부에 구금되야 취조를 밧다가 공주지방법원예심에 회부되여 이래삼년동안을 신음하든중 결국이년징역에 판결을밧고 소화십년십월에 가출감하엿다함은 당시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후몸이 심히쇠약하야 경성세부란스병원에 입원치료중이든바 지난이일에 드디여 삼십칠세를 일기로 영면하엿다한다 그런데 씨의과거략력을 소개하면 공주(公州)군산(群山)영명학교와 경성배재학당(培材學堂)을 졸업한후 원산루씨녀학교(元山樓氏女學校)에서 수년간 교편을잡고잇다가 사회사상에뜻을두고 언론긔관에투신하야 군산(群山)리리(裡里)강경(江景)부여(扶餘)서천(舒川)등지로 신문지국생활을 십오년간이나하엿스며 소화팔년에는 충남을 공산화식히려는 목적으로 공산주의협의회를조직활동하다가 령오의몸이되엇섯다한다

兩校에喜消息

延專에奬學金 三千圓寄附 金鍾善氏特志



(사진은 상은 김종선씨 하는 김상한씨)

시내권농정(勸農町)에잇는보호 김종선(金鍾善)씨는 이번에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장학금 삼천원을 긔부하얏다한다 그래서 학교당국자는 이김씨의 미거에고마운 생각을마지아니한다하며 금년부터 학업성적이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연구적재질이 출중한생도 여섯명을 엄선하야 이김씨의 장학금을논아주기로하얏다한다

女子醫講에 維持費로千圓 金相漢氏寄附

기보한바와가티 부내관철정 경성녀자의학강습소(京城女子醫學講習所)는 녀자의학전문학교(女子醫學專門學校)로 승격코저 맹렬히 활동중인바 수일전에는 부내 수표정 리순정녀사(李淳定女史)의 토지를 뒤니어 부내앵정정(櫻井町)김상한(金相漢)씨가 자진하야 동강습소의 유지비(維持費)로 또 일천원을 긔부하얏다한다

어스의慘敗者로 저승길도가엽게

勞働판차저다가行旅病死者 咸南에만三八三名

【咸興】 로동시장이 크다는소문만듯고 멀리 차저왓스나 예상하든것과는 딴판으로 일자리는 어들수업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기아와병마로 쓰러진 생(生)을 밧치는 가련한 사람이 해마다는다 함남도지방과에서 조사집계한통계를보면 작년중함남도내에서 취급한 행려병사자(行旅病死者)는삼백팔십삼명의 다수로서 전년의 이백오십여명에비하면 일백오십사명이나 격증하엿스며 특히 공장지대인 함주군(咸州) 원산(元山)등이 현저하게만타 그리고 행려병인(行旅病人)으로 현재무료시료를 밧고잇는것만도 이백칠십일명이나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함남도의로동시장을 차저헤매이다가 일자리는업고 귀아에 싸우다못하야 죽어버린 참혹한 사람들이라고한다

新版넌센스— 拳銃犯逮捕劇

模造品에놀낸西大門署

서대문경찰서고등계에서는 시내공덕정(孔德町)방면에 만주로부터 권총을 두자루나가지고 드러온 청년이 잠복하여잇다는소문을 듯고 십륙일 아침에 일즉이 고등계형사들이 몸단속을 단단히하여가지고 수갑과 포승을 준비하야 현장에 출동하야 그권총가진 청년을 잡는동시에 그정부의 가택을 수사하야권총두자루와 장검(長劍)한자루와단도한자루를 압수하야다가 문초를하엿다 문초한 결과 그청년은 시내 공덕정 삼십엽번지에사는 류모(柳某)(ㄴ)라는 사나히로십륙일 오전한시에 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 근처에서 김팔봉(金八峰)(二ㄴ)이라는 사나히와 싸움을 하엿는데 그때에 그가 가젓든 칼로써 대항을 하엿스며 그가 그의 동무들에게 『피스톨』이 두자루나 잇다고 자랑한 그소위『피스톨』은 모조품(模造品)작란감 『피스톨』이것이 판명되엿다

그래서 일은아침부터 신경을 날카로히하야 활동한결과는 결국 한바탕 우슴거리로되여버리고 말엇는데 그사나히는 그 작란감 권총은 만주서 사가지고 온것이고 칼 두자루는 조선서 산것이라고 자백하고 별로히 다른 행동을 할 계획은 업섯다고 대답하엿다 그러나 그경찰서에서는 계속하고 더 문초하여보기로 되엿다

土兵團의掠奪

【警務局着電】 십사일오전두시경 평북벽동(碧潼)경찰서동하(東下)출장소의 상류관전현석주자촌(寬甸縣石柱子村)부근에 십사명의 토병이출현하야 목선을습격하고 현금이십사원과 좁쌀두포대를강탈하야가지고 어디로인지 종적을감추어버렷다

▲십사일오후삼시이십분경 평북자성군장토면벌동리(慈城郡長土面伐洞里)의대안 집안현제사구이마호대장천(輯安縣第四區二馬湖大長川)에 만주인토병단십사명이나타나 목선오척을 습격하고 밀가루팔십포대를 강탈도주하엿다

生命뺏긴勞働者 멧十錢품파리하다

加平郡外西面工事場에서負傷 赤十字病院와서絶命

날품삭멧십전에 생명을 빼앗긴 로동자—십륙일 오후세시쯤 경긔도 가평군외서면대성리(加平郡外西面大成里)압 산본조(山本組)도로공사장에서 일을하든 전북김제군수류면성게리(金堤郡水流面星溪里)출생 최안산(崔安山)(三ㄴ)은 산의흙을까뭉기다가 산이문허지는바람에 그미테치여 팔다리에와 긔타전신에 중상을당하고 곳자동차에실리여 경성적십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소생하지못하고 밤여덜시쯤하야 죽어버리엿다고한다

兵器實驗所爆發

五十名將校一時慘死

【다린】『에스토니아』十六日發同 『에스토니아』국 다린시 교외 팔키로의 지점에잇는 병긔실험소는 십오일밤 돌연 폭발하야 예후비(豫後備)장교 약오십명은 참사하고 사십명은 중경상을 바더다한다 원인은 불명、구조작업은 전연 불가능하다고 한다。

籠球朝鮮의三名星 今日!入京豫定

廉殷鉉、李性求、張利鎭三選手 廿二日올림픽壯途에

롱구조선의보배 렴은현(廉殷鉉)(延專)리성구(李性求)(進明敎員)장리진(張利鎭)(延專)삼선수는 그동안동경에서행한 최종합숙련습에참여하엿다가 금십칠일 오후세시 이십분경성역착 노조미로귀경하야 려장준비를마치고 이십이일새벽세시삼십분경성역을통과하는 본대(本隊)와 함께전지로 향할터인데 일행은칠월삼일백림(伯林)에 도착할예정이라한다 그리고 권투의 리규환(李奎煥)군과 축구의 김용식(金容植)(普專)량선수는 이십이일 경성을통과하는본대와 동행할터이라는바 이미 마라손의 두용사를보내고 아프로 떠나갈 제선수의 장도를위하야 웅당 일반사회의 성대한 환송이잇서 제선수를 성원하며 축하할것은 물론이려니와 전긔롱구대표들이 경성에체재하는 동안에는 모교에서 송별회가 잇슬것으로 방금준비중에잇다한다 (사진은 우로부터 렴、장、리 삼선수)

凱歌는儆新에 中等蹴球리그終幕

京城府內 中等蹴球리—그最終日은 十六日午後四時五分부터 苑西町徽文高普球場에서 滿都蹴球판의人氣를 總集中한가운데 中央高普對徽文高普戰으로 열린바 徽文이中央을이겨고 儆新이大東을悠悠히이겨 四戰四勝의 全勝率로 榮譽의王座를 차지하엿다 이리하야 當番幹事校普成高普敎務主任朴格欽氏로부터 儆新軍에게 優勝旗와및優勝杯를 授與하니 連五日間盛況이든 中等校蹴球盟戰도 圓滿히 終幕을告하엿다

徽文2 中央1 【前2…0 後0…1】

【第一次戰】 中央高普對 徽文高普戰은 同日 午後四時五分부터 金命濬(主審) 張三龍、片茂英(線審)三氏審判아래 徽文킥어프로開始 (게임 六十分間)

【戰況】 開戰되자 兩軍 白兵戰을 演하드니 十二分만에 RW白鐵斗君의『롱패스』를 L1李泰根君바더 첫꼴을 지으니 中央軍 俄然奮戰하야 敵次의 好機를 逸함에 反하야 徽文軍 潑剌한 氣勢로 同廿九分에 CF金洪東君이 R1張渡英君의 꼴前패스를 쑛할새 볼이 左便 『꼴포스트』에 맛고 나오는것을 再次 꼴을 試하야 第二次의 得點을獲得한채 前半戰을 마치고 後半戰에 드러가 中央軍 奪還코저 奮戰力鬪하드니 同廿二分에 中央L1盧大炯君이 R1許潔君의 센터ー패스를 꼴前에서 强蹴하야 幸運의 一點을 挽回하야 一對一된채 中央軍武運이 盡하야 惜敗하엿다

	【徽文】	【中央】
GK	李松林	李庚洙
LF	金禮植	李丙雨
RF	徐圭宰	金昌洙
LH	黃暎秀	朱炳憲
CH	吳元泳	金璐允
RH	權五澤	李泰浩
LW	朴鋕	金昌熙
L1	李恭根	盧大炯
CF	金洪東	李漢白
R1	張渡英	許潔
RW	白鐵斗	金熙炯
FK	4	4
CK	7	6

儆新5 大東0 【前1…0 後4…0】

【第二次戰】 儆新高普對 大東商業戰은 同日午後五時二十分부터 鄭龍洙(主審) 全有亮、玄正柱(線審)三氏審判下에 大東킥어프로 開戰 (게임 六十分間)

【戰況】 本리ー그戰의 終幕을 裝飾할 此一戰은 前回의 覇者 徽文을 擊退하고 最後까지 覇氣滿滿한 儆新과 新興의 氣勢潑剌한 大東과의 對時이다 萬若 이 게임에 大東이 儆新軍을 一蹴한다면 決勝戰은 普成과 다시 行하게되므로 크게 關心을 이끌은가운데 열리엇다。 兩軍은 開戰時부터 兩便應援團의 歡呼聲裡에 열리니 風勢를 利한 大東軍 五分에 守備線을 突破하야 後陣에 肉迫하엿스나 『아웃사이드』後 戰勢는 逆轉하야 同七分에 儆新L1鄭度璇君이 R1李永昌君의『롱패스』를바더 機先을 制하고 一點을 너허 一時得勢하드니 同廿分에 大東一齊 攻擊에도 効업시 一對零으로 儆新『리ー드』、繼續하야 大東門前에서 混戰다가 四次의危機를 『꼴키』의 妙防으로 免하고 前半戰終了 後半戰에드러가 大東軍의捨身的攻擊에 儆新軍後陣이 一時紊亂하드니 F B의堅守로 凡退한다음 同四分에 大東軍逆襲을바더 儆新RW鄭鳳鎭이 꼴直前에서 『自殺꼴』自己便꼴로드러가 二對零으로 儆新勝捷、同十四分에 大東의好의챈스를 凡蹴으로흘려서고 十八分에 儆新R1李永昌君單獨突破로꼴을 너허 第三次의꼴을 얻어 十九分에 LW殷芝東君의 꼴로 一點을 追加한後 타임即前에 儆新CF宋一燮君의꼴로 또一點을 加하야 五對零으로 儆新리ー드한채 新銳大東軍 長恨을품엇다

	【儆新】	【大東】
GK	秋尙燁	具本桓
LF	陳錫均	洪斗杓
RF	崔延壽	李文洙
LH	朴利錫	高元錫
CH	金承楨	鄭淳官
RH	張鎬榮	崔承燮
LW	殷芝東	朴一同
L1	鄭度璇	金德淳
CF	宋一燮	申泰禎
R1	李永昌	吳宗植
RW	鄭鳳鎭	金鎬承
FK	2	4
CK	9	0

◇各校總得點表

順位	儆新	普成	徽文	中央	大東	得點
儆新	■	2	2	2	2	8
普成	0	■	2	2	2	6
徽文	0	0	■	2	1	3
中央	0	0	0	■	2	2
大東	0	0	1	0	■	1

◇……中等學校蹴球聯盟戰에優勝한 儆新學校軍

女子籠球戰

十八日부터開幕

籠協朝鮮支部主催의 今年度女子籠球選手權 中央豫選리ー그戰은 來十八日(每日午后四時半)부터第一高女、淑明、進明等코ー트에서 行할터이라는데 對陣은 다음과 가티決定되엿스며 決勝戰은 追後發表할터이라한다

▲十八日龍谷…二高女、女高普…女師、進明…同德、

▲卄日女師…一高女、二高女…進明、龍谷…同德、女高普…淑明

▲卄二日龍谷…進明、二高…同德、淑明…女師(以上第一高女코ー트)

▲卄三日女高普…一高女(淑明코ー트)

▲卄五日淑明…一高女(進明코ー트)

開城新人卓球戰經過

高麗體育會主催의 第一回新人卓球大會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開城高靑會館에서 十九名이 參加한가운데열린바 李王職雅樂俱樂部卓球部의 洪允基君이 優勝하엿다

【準決勝】

嚴基潤(一高)2…3秦柄徹(松都)

崔聖烈(松都)0…3洪允基(雅俱)

【決勝戰】

洪允基(雅俱)3…0秦柄徹(松都)

今日의運動

▲野球=東京六大學리ー그覇者 明大對 京電 午後五時 京城球場(觀覽料 네트後側八十錢、普通四十錢、學生二十錢)

草木도肥料를주어야크게結實·사람도補藥을써야健康長壽

天下名藥

春夏節과百補丸

◆가을은 금風이소슬하야 天高馬肥하니補藥을아니써도健康하여지난時節이라이때에 補藥을쓰난것은더욱健康키爲하야 쓰난것이고

◆春夏節은 春陽暴暑에땀이나고、거운이줄고、뼈가녹는듯하고、체증이생기고、맥이업고全身의 神經이마르니

◆이러케人體에害가만흔時節에난必히 補藥을써야하며이時節의補藥은單方으로된 補陽藥이거나체증약이거나淸凉藥이거나는 不完全합니다 全身이다弱하여지는때인故로全身을百補하난 가장完全한百補丸을春夏節에난必히服用하여야합니다 피가말가지며神經이긋세게됩니다 皮骨이根本的으로튼튼하게됩니다

◆廣告로만알지말으시고事實 봄볏과찌는더위에對抗하야健康히지내시려면 百補丸을써야만합니다

◆百補丸을잡수시면 더위타지안코、체중안생기고日射에因한神經病안생기고 心身이편하고 잔病안생기고눈이발가지고기운나고 性神經이조와지고 피부가조와지고머리의비듬까지 업서젓다고감사의 말을하는사람까지잇섯습니다 이러케까지百補하는약임니다

健康을爲하야 名勝地避暑가効大할가 百補丸內服이効大할가

◆팔자가조와서 할일업스신人士는 數百圓돈을드리면서 名勝地로避暑를가지만은

◆事業에多事하야寸暇업는人士는 百補丸을內服하시고宅에서 享樂行樂하시난것이身體健康上몃倍낫습니다

百補丸

참 眞正第一 조흔補藥

一代金特製一劑拾圓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체증속병과神經衰弱으로苦生하는사람

◆恒常氣力이업고活氣가업는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補藥百補丸을服用하시와 씩씩한更少年이되시요

이에서더조흔補藥은更無함

地方에는아즉 信用잇난 特約販賣店를求하지못하야 地方販賣所를設置하지못하엿습니다爲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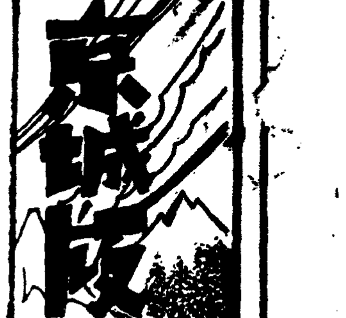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周旋人게一劑無料進呈

總督府商工奬勵館과 全鮮十三道道廳經營인 商工奬勵館과商品陳列所에서 宣傳도하여주시고 販賣도하여주시게되여잇사오니 道廳所在地 附近人士는 右記所에서買用하서도좃슴니다

(本社로 直接注文하서도送料는 本社가負擔합니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堅志町五五(前中央日報社跡)(振替京城五三番)(電光六二三番)



農村을脫出한青年

【仁川】 도회를 동경하야 출가한청년부천군(富川郡)남동면(南洞面)문학리(文鶴里)구십삼번지 김만복(金萬福)(二一)은 수십번래에 처음보든 한별문이하야 모판은 전부라죽고 많어슴으로도 저히 금번의 생활이 가망업는것을 비관하고 처자를 바친후 그의형 김만산의 집에 치입하야 현금일백사십원을 절취도주하얏고 이에 그형은 그신변을 염려하야 소관인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야 방금엄중수사중이라한다

漢江水의枯渴로
一日八百立方米突配水量縮小
鷺梁津과纛島水源池減水로
京仁兩都에食水不足

월여를 두고 비가내리지안코 가물기때문에 한강물이 말러서 배가잘 통행치못하게 되엿다고 소동을 이르키자, 련래로 문제되여오든 경성부의 수도에 다대지장이 일어나 시민에게 한층더 괴갈증을 이르키게되엿다 경성부의 수도는현재 뚝섬수원지가잇스나 그것만으로는 원체부족하여 한강건너 로량진(鷺梁津)에잇는 인천(仁川)부의 수도를 대부분공급바더서 룡산일대에 공급하여 왓든것인데 작금량편에는 인천과 경성의 량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수도사용량도 북적 늘게되여 량도시의 수도공급문제가 크게긴장하여왓다 그러든차에 이번에 큰가물이들며 한강물이 퍽줄기때문에 로량진수원지의 취수량(取水量)이 줄어서 송수(送水)가 여전치못하게되든것이다 즉로량진수원지의 취수량은 설계상으로보면 하로에 일만팔천립방미돌인것을 최대한도로 만팔천삼백립방미돌의 송수를 하여오든것이 십삼일전후하여서는 강물이줄기때문에 겨우일만오천오백립방미돌바게 취수를할수업시 되여 수도의공급은 급작히하로 팔백립방미돌이나 줄게되엿다 그런데 그동안로량진 수원지의수도공급 상황을보면 인천에 오천오백립방미돌 경성에 일만팔백립방미돌이엇다 이와가튼상태에서 수원지물이 줄어서 공급이여전치 못하게되자 인천으로서는 수원지가 자기의 것이만큼 인천의 수도사용량은 더주릴수업스니 부족되는 팔백립방미돌은 경성부에서 절약해 주어야 겟다고하야 경성부로서도 하는수업시 뚝섬수원지의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케하야 종래로량진수원지 물을 먹든룡산방면에 수도를 좀더 보내기로하고 송수관의 증설공사에 착수하엿다 이러케되면 갓득부족한 경성의수도는 이번가물때문에 한칭더부족을 느끼게되다

서는 혐의자로 그이웃구장 김상화(三五)를 인치한후 엄중조

無雨炎天下에
傳染病만大猖獗
仁川署에서防疫에努力

【仁川】 근일인천서내에는 장질부사두역지푸테리아 환자가련명을 내이여읍내뿐 아니라 송현(松峴)사정(寺町)양소학교와 인천공화동이 화성간에 장질부사환자가 발생한 관계로 림시휴교를 하는등 대소동을 이르키고잇다 이에대하야 인천서공의의 말에 하면 이것도역시 장기한발로인하야 충화하는 아동들에게 염병을일으키게되는것이라 인천을둘른 경성의관문일뿐아니라 조석으로 경성간학교에 통학하고잇는 기차통학생이 실로오백여명을조과하고잇는형편이라 인천서 홍(洪)위생주임은 적극방역에로력하라라하는데 우선적극두곳에서 림시예방주사를 하기로하얏다한다

六月十七日午後九時부터 桃山町·寶嚴寺
十八日午前九時부터 萬石町派出所

사한결과 방화범으로 판명되엿는데 내용을조사하건대약십여일전 전기피해자의 장인되는 소한리부처 싸홈을하야 맛참내 그중돌두개를 상하얏슴으로 고소를 제기하야 치료비오십원변상하게된 감정으로 피해자의 집에 감정을먹고방화하엿다한다

女子醫講卒業式

시내 관철정(貫鐵町)에잇는경성녀자의학강습소(京城女子醫學講習所)에서는 오는이십일 오후두시부터 동강습소내에서 제이회졸업식을거행한다는데 졸업생은네명이다

地價騰貴를口實로
地料를三倍引上
松峴里住民大會開催

【仁川】 『인꼴레』 경기와파파(波)에따라 인천부근의 토지가는 실로 이배내지삼사배의 고가를 보이고잇서 이기회를엿보고잇든 악덕지주와 『쁘로커』의출몰이자심하야 그폐해가적지안흘뿐아니라 이기회에또한 무리한 지료를요구하는 지주가성행하야 중세민층에대하야 직접간접으로적지안흔 고통을주고잇다 인천부송현리(仁川府松峴里)백번지일대 일백칠십여호에대한 대지는 전지주로부터 매평당삼전내지사전하든 지료를 십전으로 인상하라다가 차지인간에 반대운동이 맹렬하야 마참내 경찰의조정으로칠전으로락착되지를괴반개년이 못되든입에 신지주외리(外里)횡전오길(橫田五吉)이가 차지인일백칠십여호에대하야 청천벽력가튼통지서를 발부하얏다는데 그내용은 현재매평칠전내든 지대는이십오전에 특전내든 지대는십오전 내지이십전으로 인상하엿스니 오는이십일까지 동사무실에 인감을휴대출두하야 신계약을 체결하라 만일전기 기일내에 신계약을 체결치아니하는자는 최후의 처치를하겟다는것이다 이에주민측에서는 아모리 지가가 동귀하야젓다 하드라도 지료를 상배이상 인상하는것은 너무나 횡포행동 이라하야 십오일 오후세시부터 동지혀에서 주민대회를 개최하고 절대 불응하는 동시에 그대책을강구키로 되엿다는데 주민들의공기는 다소험악하야 자못주목되는바라한다

鍾紡京城工場
新築上棟式擧行

【永登浦】 총예산일천만원이란 거액의 자본을던지어 다전공무점(多田工務店)의 청부로 목하건축중에 잇든 종연방적주식회사경성공장(鍾紡京城工場)은 작년칠월 기공한이래 공사가순조로진행되여 십오일오후다섯시에 수적총독부식산국장(穗積殖産局長) 안정경긔도지사(安井京畿道知事) 좌백내무부장(佐伯內務部長) 감저경성부윤(甘蔗京城府尹)을비롯하야 은행회사중역기타관민사백여명을렬석하에 성대한 신축상동식을 거행하엿다고 한다

富川郡下苗坂
三割以上枯死
仁川署는물騷動警戒

【仁川】 한발 한발의신흥성은날로심하야 부천군은 수산간으로 극북을막론하고 돌며오지오래다이에 경인부근의농황을 조사하야 보건대 인천관내의 부천군일대가 주재소보고에의하면 이활내지삼활이상의 고사를 보이고잇슴뿐아니라 문학면(文鶴面)일대는 실로오활이상에달하야 매일가티일어나는물싸홈이 매일평균 수십건에달할 형편이라하야 인천서고등계에서는 특히 농촌민심의 동요를우려하야 소관주재소에 엄명하야물소동에대한 경계를하라라한다

府永登浦出張所
新築上棟式擧行

【永登浦】 경성부영등포출장소는 총경비 약삼만오천원으로 영등포주요지대에안부조인(安部組人)씨의 청부로 아모지장업시 공사가 진행되여 십오일오후세시부터 감저경성부윤(甘蔗京城府尹)이하 관민유지 백여명렬석하에 성대한 상동식을 거행하엿는데 준공은 오는칠월말경이라고한다

暴行後에絞殺
汶山幼女屍事件眞相

【汶山】 긔보=어린소녀를교살후 솔밧속에 암장한시체를 발견한 파주경찰서에서는 팔방으로 범인을 수사하던중 지난십삼일련천(漣川)방면으로 도주하는행동이 수상한청년을 검거하야 엄중취조한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그자는 경찰의 엄중한취조에범행일체를 자백하엿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사실을 조사하여보면 그는파주군 파평면 덕천리(坡平面德泉里)사는 김양복(金良福)(三○)으로 가튼 동리 차간란(車干蘭)의 셋재딸 조복숙(趙福淑)(六)을 과자를사서주며 감언리설로 꾀여가지고 그동리 뒷산으로 다리고가서 폭행을하라하엿스나 어린복숙은 울고발악을함으로 야수와가튼 전긔김량복은 기여히사욕을채우려고오후두시쯤되여복숙을 교살한후귀어코 수욕을채운후 그시체는암장하얏다한다 이러케잔인한행동을한 그자는 본래동리사람에게 미움을바다오든자로서 일정한주소가업시 이곳저곳으로단기며남의집에다가방화도수차하얏고소년폭행사건도이번이두번재라고한다

理髮料五錢引上
東大門西大門鍾路管內서
物價暴騰의第一波

동대문 종로 서대문 세곳 리발조합(理髮組合)에서는 얼마전에 물가폭등을 리유로 각기 관할경찰서에 리발료금을 오전식 올리겟다는 허가원을 제출하엿든바 지난 십삼일에 허가가 나왓스므로 오는 십팔일부터 일제히 실시하기로 되엿다한다

昌信、崇仁町管轄은
東部出張所에서
阿峴、城北町은本廳에서管轄
廿三日부터事務移管

사월일일부터 경성의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종래 경성부 본청관내이든 창신정(昌信町) 숭인정(崇仁町)은 동부출장소구역으로 편입되고 또시외에속하든 아현정(阿峴町)은 본청관내로되여 성북정(城北町)은 본청관내로되여 잇섯스나 그간 사무의불비로사실은 전과창신정、숭인정은 본청에서 아현정은 룡산출장소에서 사무를 취급하여왓는데 그동안에 관괴사무가정리되여 오는이십삼일부터는 각히지정관할대로、창신정、숭인정 성북정은 본청에서 아현정은 룡산출장소에서、사무를 취급케되엿다고한다

家屋稅戶別稅
督促手續延期

지방세제개정(地方稅制改正)에 의한 새로 부과된 가옥세(家屋稅) 호별세(戶別稅)의 두가지세금은 도세 부세를 합하여 모다 오월말일까지에 바처야 하기로되엿섯는데 원체 납입고지서의 발부가 느저섯기때문에 일반의 부과도 다소 느저섯스나 십오일현재 경성부세무과조사에 의하면 가옥세와 호별세의 납입성적이 모다 인원에잇서서 팔할、내지 칠할、금액에 잇서서 칠할、내지 팔할로 비교적 성적이 조와다고하는데 납입기한을 오월말일로 하엿섯스나 륙월말일까지로 연기하고 그기한에 못내는 사람에게는 칠월일일현재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수수료를 밧기로하엿다고한다

딸의집에放火

【仁川】 지난칠일부천군(富川郡)

우리아들딸 學園들이

無產兒童의修學殿堂
血汗으로된金字塔
─六旬을넘은 鄭校長의誠力─
光彩燦然한善行錄!

華山普校篇 26

지금으로부터 사십여년전인 개국(開國)오백사년에 당시조선(朝鮮)이 청국(淸國)의 긔반(羈絆)을 벗게되자 이를긔념하기위하야 건설된것이 현저정(峴底町)에잇는 독립문(獨立門)으로 작년시월이일에 령천(靈泉)행 전차선로가준공된후 우리귀억에서 사라지기 쉽게 되엿든 이곳이 새로운 각도로 경성부민과 접근하게가 만허지게 되엿다 파리(巴里)의 개선문(凱旋門)을 방불케하는독립문 이곳을둘러싼 궤도의 카ー브는좀의쪽으로 보며 편창(片倉)제사주식회사의웅장한 건물을 지나치니 죄수의 그림자가 오락가락하는 서대문형무소의 붉은담이 유난히도 무겁고 무더워보인다 얼마안잇서 인왕산(仁旺山)절정을 넘어버릴듯이 초고속도로 건설되여가는 쪽겨가는사람들의 오막사리 이가운데 금화산(金華山)의줄기를벗고 잇다하야 그일홈도화산(華山)보통학교라고 하엿스니 십오변이라함은도력사밧게 가지지못하엿스나 이부근의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인 이학교는 그사명에잇서서나 실적에잇서서나 우리들의 주의를끌고잇스며 항상크나큰 긔대를가지게한다

×

지금으로부터 십오년전인 대정십일년오월에 우리교육계의독지가 장규선(張圭璇)씨가 홍파정(紅把町)의 민가 한채를 빌려 보명학당(普明學堂)이란 일홈으로 무산아동 십여명을 모아서 야학을 열게 되엿스니이것이 오늘날 화산 학교의 출발이엿다 매일가티 모여드는 배움에주린 소년소녀들의 향학열은 동년시월에 홍파정 로서아사람의 정교회(正教會)주택으로옮겨가지 아니치못하게 되엿스니 이가티 눈물겨운 행낭사리일망정 살림사리는 점점커가게되엿다 다음해구월에는 현교장 정봉현(鄭鳳鉉)씨가 이학교를맛게되니 이번에는 주학부(晝學部)도 설치하게되여 또다시관동정(館洞町)에잇는 독립관(獨立館)으로 이사를하게 되엿다 면분만이되는 선생님이 밤과낫으로 침식을일코 육영사업에몸과 마음을 바첫스니 오날의 화산이룸과십년에 칠학급오백여명의 식구가 되엿는도 이선구자들의열환과 혈루로된것이 아니고무엇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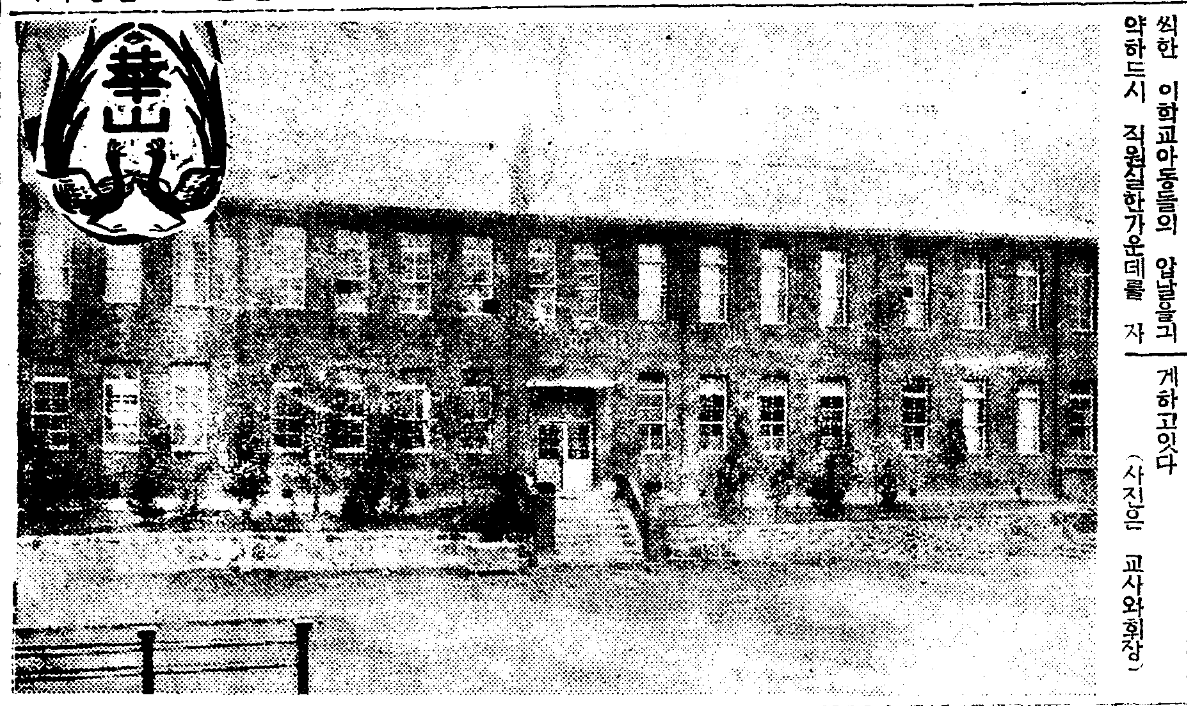
그다음해인 대정십삼년륙월에 현저정(峴底町)현교사를 신축하야 이날로 쓰라린겻방사리도끗을 매즈니 다음해구월에는 야학과를 폐지하고 전혀주학본위로되여 처음으로 다른초등학교와 억개를겨누게되엿다 대정십오년구월일일에 학교일홈을 사립화산학교라고 부르게 되엿스며 도지사의 보통과설립인가가 나온 소화사년삼월까지 눈물을먹음어가며 내용충실에 일로매진하고잇섯다 소화팔년 사월일일에 륙년제가되니 이로써 형식과 내용을 구비한 완전한보통학교가되던 세음이니 이는 저간십유여년동안 풍우를 돌보지안코 록순이지난로구를 잇끌고 매일가티 직원과아동을 격려하여나려온 정봉현교장의 로심의 결정일것이다

×

이학교의 교훈(校訓)인근면(勤勉)과 정직(正直)이란표어는 수만흔아름다운화재를 제공하고잇스며 각학급에 걸린선행록(善行錄)에는점점이학교의 자랑거리가 기록되어간다 이가튼 명예로운분위긔속에서자라난 그들은 상급학교는물론 취학잘되기로도 유명하다 또하나 이학교의 특증으로는전학년이 남녀공학이란 조선인초등학교에서는 드물게보는현상으로서 이결과 홍수장매우조화결과를 매저 교실가는것도 다른학교에비하야 퍽깨끗하다

×

사람으로치면 나히가열다섯살 밧게안되는 이학교는아직 희망의 별을 우러러보며 아프로 아프로 돌진하고잇는 소년시대이다 소년은우리들의빗이오 미들이다 륙상경긔의 우승긔는 씩씩한 이학교아동들의 압날을긔약하는시 직원실한가운데를 자리잡고잇스며 유월의 태양이그들의 영채잇는눈을 더한층빗나게하고잇다



(사진은 교사와회장)

大奉仕特賣
御愛用家景品附
ソース イカリ
今期間中
이까리소ー쓰
二合瓶한개를사시는분마다
實用 유리
小皿
한個式빠짐업시進呈
速히下命하시옵기를!

告!

今番에本社營業局長小泉氏와 鮮滿係員崔石逢氏兩名이 來二十日頃 東京을出發하여 鮮滿地方을順廻케되엿삽기 玆而仰告하오며 諸位의만흔 註文을주소서 一道에一個所特約店을募集하오니 곳申込하시요
袋物製造都賣商
東京市源川五新大橋二ノ十二
株式會社やまと屋
電話本所(73)二三二五番
振替東京一〇三七六八番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鄉을莫論하고 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呈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櫻町五三朝日軍手營業所

景品附大特賣
天下一品
萬
龍
キッコーマン醬油
キッコーリウ・チガミリウ醬油
各印十六立 一樽에 鹿子萬模樣小丼五人前 一組
各印二立 一壜에 半磁器彫刻模樣貝形三五皿 一枚
龍印入立 一罐에 鐵鉢形山水模樣刺身皿(小皿付) 一組
빠짐업시進呈
特賣區域 朝鮮全道
F-18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商標 千壽
고추가루
金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園二八二番
振替金山一五三五番

ひ ふ み
一二三
皮膚病退治의外用常備
이스러지는若葉
害를기쉬운柔肌
조곰이라도皮膚
病菌이부르면곳
全身에퍼집니다
아프고도가렵고
外見이醜하면큰
일인故로곳
「一二三」(히후미)로治療하여
주십시요
主効
음낭습진·버짐습진·무좀·태독·白癬·頑癬·쇠버짐·부름
진무른데·실컨데·濕疹·구두傷·땀띠·頭瘡·切傷·火傷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實効散本舖 東京神田明神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番
NO.130

六月十五日부터晝夜
東劇座第二週
東劇座의公演도벌서第二週를마지하게되엿습니다다음의特選名題와 熟練된括目할演技로다시여러분을 마지하려합니다
悲劇『마음의故鄉』全二幕
林仙圭 作
우리들의살님에서잡어내인눈물겨운이약이!이것을가장演劇的으로樣式化식혀여러분게밧치려한다 이것은오즉東劇의演劇이안이라여러분에演劇이며우리는이演劇에서만이사람다운눈물을흘닐수잇슬것이라고생각한다그리고移動舞臺裝置와特殊한照明의初試驗等여러분의흥미를도읍기에만족하리라고생각한다
出演 卜基鎮、宋海天、李敬煥、河芝滿、金英淑、徐玉汀其他東劇올스타ー캐스트
金振門 作
人情劇 落花一輪 全一幕
出演 朴昌煥、韓一松、金道日、朴英泰、李潤玉、金陽春其他
洛山人 作
喜劇 저의男便은『에로』가조래요 全一幕

西大門町 電光3 三一〇番
東洋劇場
十四日カラ十八日マデ
特別公開
晝夜三回繰返映寫正午開演入替無
各等大人五十錢 學生三十錢均一
次週封切……ユナイト社『バーバリ・コースト』パラマウント社『每夜八時に』PCL『三色旗ビル』
今週の番組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あきれた連中
岡田敬·伏水修監督作品
横山エンタツ 花菱アチャコ主演
流線型漫才の銀幕初登場。哄笑、爆笑、笑ひ!笑ひ!
▲メトロ映畫超大作日本版
猛獸師の子
リチャード、ボレスラブスキ監督
ウオーレス·ビアリイ ジヤツキイ·クーパー主演
我子の愛情を復活せしめん爲には如何なる犧牲をも厭はなかつたが遂には生命をも堵すと云ふ父性愛の感激篇!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過去から來た男
ハロルド·ヤング監督
エリツサ·ランデイ フランセス·ドレーク ケント·テイラー主演
彼女は一人の男を怖れた。何故なら彼は過去から來た男だつたからだ、破壞と罪惡と秘密の影を背負つた惡魔だつたからだ……
若草映画劇場
(電本二三五四番)

京南地方"양딸기" 旱魃繼續으로大減收
長安人의初夏味覺에異狀!

【京畿】 京南名産中의 하나로 屈指하는 府內梨泰院町 普光町 漢南町 金湖町等의『양딸기』의 今年作況은 昨年에比하야 約三分一假量의 激減을보게되엇다 한다 그原因은 六十年來의 처음보는 渴魃의 脅威를 바더 完熟되기前에 凋落이되엇다는데 元來『이양딸기』는 京南의 園藝業者들이 京城府民을 相對로 栽培에 注力하야 花彩、잼等으로供給하는 關係로 逐年栽培가 旺盛하야 年産額 五千圓을 算하엿스나 今年에는 不過二千餘圓도 되거가 어려운反面에『잼』의 價格도 騰貴되리라고한다

土木事業勃興 勞働者의需要激增

鐵道局에서는 明年度에 京釜中央線의 新設을비롯하야 旣定計劃의 線上促進、路線改良等五千萬圓程度의 建設改良事業을計劃코 잇는데 이外에 總督府에서도 普通土木事業外에 五個年繼續六千萬圓에 達하는 地方匡救大土木事業을 計劃中으로 明年度 土木關係의 豫算總額은 國費工事만 七八千萬圓에 達하겟고 其他地方廳負擔分과 北朝鮮의 滿鐵關係의諸事業、京春鐵道其他의私鐵、水電工事、化學工業工事等을 合算하면 明年度土木建築事業關係에 投할 資本總額은 一億七八千萬圓을 不下하리라고 보이어 事業界는 好調氣運인데 此等新興事業에 需要될勞働者數도 今年度의 實人員十八萬에比하야 一躍三十萬人以上에 達할것으로 概算되어 勞働者의需給調節待遇問題의解決等勞働關係諸問題는 一層重要性을加코잇다한다

窯業開發爲해 協議會常設
月一回가량例會開催

朝鮮의 窯業資源開發은 旣報와如히 日本內地의 原料涸渴現狀으로 一層一層 重大性을 加하야 來十九日에는 窯業懇談會를 總督府에서 開催하기로 되엿는데 이와別個로 總督府殖産局에서는 窯業開發을爲하야 殖産局商工課 鑛産課 中央試驗所 地質調査所 燃料試驗所의 各關係官을 網羅하야 常設機關으로 窯業協議會를 組織하기로 되어 向後 月一回가량 例會를 열고 窯業의 開發進展上에 資하기로 決定하얏다 第一回는 十五日 午後一時부터 殖産局長室에서 開催하고 朝鮮內窯業、原料와 埋藏量調査等의 協議를하얏다

朝鮮木材工業 콜크會社創設

朝鮮木材工業會社에서는 朝鮮의『콜크』精製工業이 採算이 有利함에 着眼하고 會社創設以來그 起業計畫을하고잇든바 드되어 梁津의 朝鮮特産物 合資會社의『굴참나무』樹皮工業權 一切를 繼承하야 兩社提携下에 資本金五十萬圓中 拂込金十二萬五千圓의 旭 콜크工業株式會社를 發起設立하기로 決定하고 目下創立手續中이다 그런데 會社創立後는 親會社 朝鮮木材工業의 仁川萬石町 工場隣接地에 精製工場을 建設하기로 決定하고 操業開始後는 同所及梁津 굴참나무粒子工業의 粒子를 原料로重點工業、建築資材、家具用高級品을製造할 計畫이다 이리하야 朝鮮의輸移入『콜크』의 防遏 自給自足을圖하는同時에 日本內地、滿中方面으로輸移出을 行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日本의『콜크』需給狀態는 極度의 供給不足으로 每年 多量의 輸入을하고 잇고 特히朝鮮과如함은 原料『굴참나무』樹皮를 多量으로 日本內地에 移出하면서 그製品을 逆移入하고잇合으로 同社의創立은 關係各方面에서 相當히 注目되고 잇다 發起人은 如左하다

▲木村七郞 ▲堀口慶一 ▲井出繁 ▲木城眞煌 ▲野瀨勤一郞 ▲福島邦一 ▲東松孫三郞

農村振興委員會 來十九日에開催

今年度以降 第二期擴充計畫에 入할 農村振興運動에 對하야서는 四月以降 景山農政、鈴木林政、岸土木의 各課長이 各道의 振興陣을 視察한結果에 基하야 來十九日總督府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기로되엇는데 現在의 振興部落中에는 實績을 誇示하는것도 잇合으로 今後의 對策에對하야서는 愼重히 協議할터이라 한다

高利債整理의 範圍를擴張
財務、農林兩局調査

昭和七年度以後 全朝鮮金融組合을 動員하야 農村更生의 側面的工作으로서 農民大衆을 金利高壓下에 呻吟케하는 高利債의 整理에 進出하야 總額五千萬圓에 達하는 年利三割以上이라는 超特急高利의 借財整理에 着手하얏는데 其後 이미 千七百萬圓을 整理하고 其他調停에依한 利率低下 舊債償利等을 合하야 約半額의 整理를 完了하얏合으로 更히 整理範圍를 擴張하야 年利二割程度의 것에까지 及하야 農村更生運動에 一段 拍車를 加하기로 決定하고 目下財務、農林兩局에서 調査중이라 하고잇다한다

春繭共販消息一束

▲大田 忠南春蠶共販은 十四日舒川市場을皮切하야 十五日大田、鳥致院、論山、公州、扶餘、鴻山、大川、瑞山、藍川、牙山、溫川、唐津、洪州等 各市場에서 一齊히 開始하고 十六日은 鎭岑、鴻山、舒川、十七日은 熊川、禮山、海美、泰安、十八日은 新灘津、維鳩、天安、十九日은 舊川等으로 數日間 各市場은 大盛況裡에 取引이 展開될바 十四日 舒川에서의 取引狀況은 百卅貫의 出廻를보이고잇고 上簇改良으로서 特等繭은 三圓十四錢의 高價를 보이고잇서 好況을보이고잇스며 今年은 前年에比하야 豐作이라고한다

▲長城 長城郡農會에서는 今年春蠶掃立枚數가 五千七百枚인데 桑發芽의 順調와 天候가適宜하야 飼育이 大體로 良好하야 販賣高 十六萬圓을 豫想한다하며 이로因하야 長城만은 昨年의 凶作으로 困窮한 農家가 多少間緩和할수잇다는바 共同販賣는 如左하다고한다

邑內 六月十五日
社倉市 六月十三日
四街里 六月十二日

▲【牙山】 忠南牙山郡農會에서는 今年春繭共同販賣를 今月十五日부터 十餘日間 하기로 되엿는바 今年은 昨年에比하면 多少增收될 것이라는데 共同販賣價格은 아래와갓다한다 特等三圓六十三錢 一等三圓十錢 二等二圓八十二錢 三等二圓二十六錢 四等二圓二十七錢 等外一圓九十八錢 同上一圓十三錢

▲【梁山】 梁山郡今春蠶掃立枚數는 四百二十二枚인데 今年에는 天候가 良好하며 蠶의 管理를 잘한 까닭에 今春繭의 豫想이 四百石을 超過하리라는바 本郡今春의 共販은 左記와如히 지난十二日부터 開始되엿다는데 蠶價는 六六〇圓의 二七錢으로 特等에三圓四十五錢 一等에三圓八錢 三等에二圓三十七錢이라한다

梁山邑 自六月十二日至七月五日(每日)
院洞面 同上

▲【淸風】 忠北堤川郡淸風에서는 六月十六日부터 十五日間春繭共同販賣가 始作되는바 蠶價는 二十五六錢이라고하며 今年은 麥凶으로 不安이 甚大한 此際만은 도움이되리라고한다

▲利川 利川郡農會에서는 今年春繭共販을 左記와如히 日割과 場所를 指定하고 取扱한다고한다

利川 六月十六日ー三十日
長湖院 六月十四日ー二十五日
新屯 六月十八日ー二十五日

日用商品市況

十六日 京城市內 雜穀市況을 보면 如左하다

▲粟 奔騰 産地는 銀高와 特産高에 刺戟되엇을뿐만아니라 産地出廻殆無와 朝鮮內 賣行良好로 投機手持側의 賣惜態度가 甚하야 連日奔騰되고잇다 今日 産地入電에 依하면 每石에對하야 奉天鐵嶺 四平街共히 九、三〇이며 當地는 麥作悲觀과 米價暴騰으로 買氣旺盛하다

▲大豆 續騰 銀高에 刺戟되어 騰勢가 再燃되엇스며 當地도 期米高 賣物이 稀少한데 日本內地注文은 如前히 旺盛하야 新高價로 進되엇다 今日時勢는 每石에對하야

龍山三等 二一、五〇
溫川三等 二一、〇〇
金汁南滿 二〇、五〇

▲大麥 保合 今年麥作 悲觀으로 多少强含氣配이나 現物도 別無임으로 賣買는 全然업다 時勢는 每石에

秋麥 九、〇〇
春麥 八、〇〇

▲小麥 堅調 期米高로 人氣强化하야 新麥先物은 低價에서 每石 二圓五十錢可量 暴騰을 보하엿스나 古麥은 製粉側及麵子側이 全部買驚動으로 時勢는 多少强한 程度에不過하며 賣買는全然업다 今日石當市勢는

沙里院 一八、〇〇
新幕 一八、二〇

▲白胡麻 保合 上海는 歐洲 米國輸出不振으로 多少軟化되엿스나 當地는 在庫品 漸減으로 時勢不變狀態로 今日石當市勢는

南京 一等 一五、〇〇
滿洲 一等 一四、七〇
漢口 赤胡麻 一四、八〇

五月中京城物價
比前月低落이나 比前年同期昂騰

【朝銀調査】 五月中의 京城物價指數는 一八六·六九(明治四十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 基準)로 前月中에比하야 ·一二의低落이나 前年同期에比하면 八·八七의昂騰으로서 卽前月을百으로하면 九九·九三이오 前年同期를 百으로하면 一〇四·四〇이어다 五月中物價를 前月과對照한 三十種目中 騰貴十二品 低落七品 保合十一品인바 이제品別平均價格을示하면如左하다

品名	單位	平均價格
穀物		
玄米 上改良種	一石	三七、三〇
精米 日本內地人普通物	百斤	一三、八〇
大麥 西朝鮮	一石	九、〇一
小麥 黃海道	同	一〇、四三
大豆 龍山	同	一九、〇五
小豆 同	同	一三、一四
粟 鐵嶺上	一袋	一四、二三
織物		
和金巾 三A	一反一梱	二七、〇〇
三八紬	一反	三、三〇
織物原料		
綿絲 扇面十六手	一梱	一八六、三五
生絲 最優格	百斤	一四〇一、〇六
繰綿	同	六五、七五
燃料		
石油 松票	一函	六、〇五
石炭 撫順(中)	一噸	一八、〇〇
木炭 白炭	十貫	一、九〇
松薪	同	六〇
食料品		
小麥粉 一等粉	一袋	四、一一
砂糖 精白(ト)	百斤	三一、〇三
醬油 龜甲萬	小樽	四、四四
再製鹽 仁川	百斤	三、七〇
日本酒 櫻正宗	四斗入	七四、四〇
麥酒 기린	一函	五〇、〇〇
肥料		
豆粕	一枚	二、二〇
硫安	十貫	三、九一
建築用材料		
木材 朝鮮松挽材	一才	一、二五
金物 亞鉛引浪板	一枚	九七
板硝子 旭黑菱	一箱	七、二〇
其他		
牛皮 改良上	百斤	四八、三二
洋紙 富士外라四二封度	一連	四、一〇
燐寸 羽鹿	二百打一函	八〇〇
總平均指數		

江南特産
─江南支局一記者─
淸凉果物로逸品
自古로有名한"참외"와"수박" 年産百萬貫을突破

廣州는 朝鮮의 中央都市인 京城과 隣接한 地方으로서 産業大部分이 京城을 直接市場으로 하고 逐年發展하고 잇다 特히 漢江에 沿面한 江南一帶는 六十萬 大京城府民의 食料物資를 朝夕으로 供給하는 그야말로 京城의 門前菜園이라 고하여도 過言이아닌 同時에 其産物이 어느것하나 特産物 아닌것이업다 長安의 거리거리 골목마다『무 또렝ㅣ배추들사료ㅡ』를 朝夕으로 웨치며 다니는 野菜行商들의 등짐으로 한짐、두짐 搬出되는것이 年二百五十七萬九千四百八十貫이나되는 蔬菜가 著名함은 自古로 世人이 周知하는바임으로 그에對한特別한 紹介는略하거니와 其外에도廣州(特히江南)가 아니고는 多量 生産할수업는 特産物며가지가 잇스니 첫재로酷暑苦熱에 淸凉果物로는 참외와 수박을 들지안흘수업스며 이무엇보다도만흔 消費量이 他地方이라고 참외와 수박이 全然 生産되지안흠이라마는 特히 이地方의 그것은 生産量으로나 또는 맛으로 보아 他地方의 그것과 견줄바가아니다 참외로『成歡참외』가世上에 有名한것과 가티 廣州에도『廣州보아기』라고 하는참외가 一時朝鮮的으로 이름을날리다가 모르는새에 자최를감추고 지금에는『김막가』(金瓜)라고 하는것이가장 豐盛하게 産出되어 年移出高六十五萬七千餘貫을 突破할 뿐만아니라 그風味가 멀리 海外에 까지 이름을 떨치고잇다 그리고 수박으로는 李朝數百年間을 通하야 所謂『廣州로수박』이當時에 가장 有名한것으로 그에對한 參考文獻이 업合으로 仔細히 알길이업스나 年高한老人들의 이약이를 드러면임이京南特産에서 紹介한 廣州金剛草와 아울러 當時 官家에서 만히맛보든 珍品의 하나이엿다고한다 그러나 이것도 時勢의 變遷을 따름인지 지금에는 자최조차 차즐길이업시되고『大和』『甘露』等 改良種만이 年復年 氣勢를 올리게되여 年産四十五萬餘貫에 達한다는대 이또한 天惠的風土와 地質이 特異하야 그럼인지 가튼 種子로도 이地方産物은 他地方의그것에比하야 유달리 甘味와 果汁이 豐富함으로 京城은 勿論 멀리 滿洲에까지 그聲價가 자못 高調되여잇다 이와가티 江南에 수박과 참외가 自古로 끈임업시 有名한것은 그原因大部分이 前記한바와가티 他地方과의 特異한 土質關係이겟지마는 둘재로는 其栽培技術이 가장 發達된데도잇다 其栽培의 仔細한 技術方法을 一一히 論하기는 避하거니와 이地方에잇서 참외와 수박을栽培함에 두가지 方法이잇다그하나는 溫床栽培이고 또하나는 天然栽培인대 前者는 三月上旬만되면 溫床에 窓戶를 덥고 그속에서 苗를 成育시키는것이고 後者는 本時期에 따라 五月上旬이나 中旬에栽培하는것인대 溫床栽培한것은 六月下旬頃에 벌서 그結果의 成熟을 보게되여 珍貴한早熟品으로 京城을 通하야 各地로出廻되는것이 每年 참외가 八萬餘貫 수박이 五萬餘貫合計 十三萬餘貫을 突破한다고하며 天然栽培한것은 七月中旬頃에야 그結果를 엇게된다는바 이또한 年産高를 調査한즉 참외가 五十七萬 餘貫수박이 四十萬貫 合計九十七萬餘貫에 達한다는바 이에對한 耕作者들은 大部分이이것으로써 一年의 生計를 圖謀하는만큼廣州(特히 江南一帶)의主要 産物로되여 廣州郡農會에서도 每年其獎勵水準을노피는中으로 將來가 자못 有望하다고한다 끄트로 참외와수박에對한 例年의 時勢를 調査한다면 다음과갓다

▲溫床栽培品

品目	等級	單位	價格
참외	一等	百個	一四、〇〇
	二等	同	七、〇〇
	三等	同	〇、〇〇
수박	一等品	每貫	〇、七〇
	二等品	同	〇、五〇
	三等品	同	〇、三〇

▲天然栽培品

品目	等級	單位	價格
참외	一等品	百個	四、〇〇
	二等品	同	三、五〇
	三等品	同	二、〇〇
수박	一等品	每貫	〇、三〇
	二等品	同	〇、二〇
	三等品	同	〇、一〇

(寫眞은天然栽培한 참외밧)

商議의要望과 總督府의處理
❶最近數年間의經過

▲國營製鍊所의 建設을 要望함(昭和七年六月十八日要望)

◇理 由

世界財界의 變動은 日本의 正貨準備에까지 影響하야 曩者解禁한 金의輸出을 再禁하고 政府는 그對策의一로 産金事業을 獎勵하야 그補充回復에努力하고 잇合은 周知의事實이다 此際에 我朝鮮 産金事業의 情態를 觀察하면 거의 原始에갓가운 施設로서 아직 年額八百萬圓을産하야 斯界權威者 横堀博士는朝鮮의 金鑛分布狀況을 調査하야 世界産金國의 王座를 占하는南阿를 凌駕하는 優良地帶로 年額三千萬圓의 産出은 難事가아니라고 하얏다고드럿다 따라政府當局은 朝鮮産金事業이 不振하는原因을 精細하게 調査하고 特히 法意하야 그保護獎勵를 策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그一方策으로 産金地帶의 樞要한個所에 國營製鍊所를 建設하고 産金業者의 統制를 保持하고 그增産을 獎勵하기를 要望하다 金融의圓滑 交通의便否等도 서로 關聯하는問題인데 國營製鍊所의建設로써先決問題라確信하고그促進을懇請하는所以이다

▲處理意見

現在民間의 乾式製鍊所는 日本鑛業株式會社鎭南浦製鍊所、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興南製鍊所、朝鮮製鍊株式會社 長項製鍊所의 三이 잇고 또目下起業計劃中의 것이 一이잇서 此等 모다自山鑛石의 處理와 買鑛鑛石의 處理를 目的으로 하는것임으로當面 國營製鍊所設置의 必要가업게되엇다고 認한다

▲玄米의重量制實施促進을要望함(昭和七年六月十八日要望)

◇理 由

朝鮮米는 多年改良의 效果에依하야 그重量은 顯著히增加하얏스나 玄米의 移出取引은 依然容積에 依함으로 産米改良의實益을 收키不能할뿐만아니라 容量은이를 計量할際의 巧拙에依하야 增減不同하야 到底히 正確을期키難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게다가 容積은 氣溫濕度等의外因에 左右됨은 重量의比가 아닌等 缺點이만코 品質의改良을無視하는것임으로 當業者一般의 希望을들어 至急그重量制로 改正하기를要望하는바이다

▲處理意見

▲輓近 朝鮮의 中小商工業의 經營이 益益 難澁을 極하고잇는 實情에 鑑하야 當局은 日本內地의 先例에 則하야 低利資金의 融通과 適當한 補償制度를 設하기를 要望함(昭和八年六月廿一日要望)

◇理 由

政府는 昭和七年八月當時未曾有의 不況에 直面한 日本內地中小商工業者를 爲하야 非常時金融對策으로 七年度五千萬圓의預金部低利資金의 運用을 決하고 該貸付는 各府縣으로하야금 貸付損失補償制度下에 이를 各地中小商工業者에對하야 融通식히는 途를 開하얏다 그런데 當時 日本內地以上으로 疲弊를極한 朝鮮의 中小商工業者에 對하야는 僅僅 七年度에 朝鮮金融組合의 融通資金으로 三百萬圓과 朝鮮、臺灣、樺太의 農村及中小商工業關係預金部資金元利支拂資金(卽償還延期)으로 一二百五十萬圓中의 一部만이配當을 보앗合에 不過하다 그러나 預金部低資의 運用은 朝鮮中小商工業者에對하야 金額에잇서 顯著히 少額일뿐만아니라 그融資全部가 此等業者를 爲하야 融通된것이아님은 勿論業者에 對하야서는 全然 間接的의 融資임에 不過하다 이를日本內地 直接中小商工業者를 目標로 게다가 損失補償制度下에 運用하고 잇는實例에 比하면더 말할 餘地도업다

朝鮮의 中小商工業은 爾來未曾有의 經濟非常時에 直面하야 그窮狀이 逐日深刻의 度를 加하고잇고 輓近 朝鮮의 金融界는 日本內地와 其傾向을 가티하야 大槪遊資를 갓고잇는 狀況이나 中小商工業者의 窮狀이益益深刻化하야 前途를 難測할으로 그貸出을 躊躇逡巡하는 傾向이 顯著하다 이에잇서 適當한 對策을 세우고 中小商工業者의 指導를 圖하지안코면 融資難과 經營難에 陷入하야 再起三不能하게될것은 明白하다 卽 補償制度下의 低資運用에 依하야 此危機를脫케하려는所以이다

▲處理意見

硏究中

▲朝鮮의 工業助長發達을 期키爲하야左記事項의 實現을 圖함을望함(昭和九年六月廿一日要望)

一、資源調査機關의 設置及工業硏究機關의 擴充을할것

一、家內工業及副業에 對한 指導機關을 設置할것

一、中小工業에 對한資金融通의 途를 擴大하고 또可及的低利融資의 方法을講할것

◇理 由

現今 朝鮮의 工業은 時運의 進展과 朝鮮將來의 産業的發展性과에 鑑하야 一大振興을 期치안코면 안될時機에잇다 그리고 그振興上 施設을要하는것이 多多잇스니 就中 工業의 基本인 資源의 調査機關設置와 工業硏究機關의擴充이 가장急施事項임을認한다 또現下의 事情에 빗취어 必要하고 또不振한 家內工業及副業을 發達식히기 爲하야 各道에 指導員을 配置하고 或은專者所를 設置하는等 그指導機關의 充實을期하며 다시 中小工業의 基本問題인 資金融通의 途를擴大하야低利融資의 便을圖함이 急務라고 생각한다 此等施設은 主로當局의 工業政策과 獎勵施設의 發現을 기대리는바 만흠으로 適切히施設運用하기를바란다

▲處理意見

硏究中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〇五〇	金銀鑛	平北碧潼郡北面	五月十九日	京城府竹添町 崔昌學
一三〇五一	同	忠南保寧郡熊川面	同二十一日	平原郡順安面 朴宗華
一三〇五二	同	江原麟蹄郡麟蹄面	同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充
一三〇五三	同	咸南定平郡長原面	同	鏡城郡漁郞面 海部芳太郞
一三〇五四	金銀鉛鑛	平南成川郡大邱面	同	安岳郡安岳面 元鳳燮
一三〇五五	金銀鑛	京畿安城郡安城面、金光面、瑞雲面、寶蓋面	同	安城郡金光面 代表者 黃昌一、同寶蓋面 陳炳玉
一三〇五六	金銀銅鉛鑛	慶南密陽郡三浪津面	同	馬山府萬町 代表者 金應三、密陽郡三浪津面 朴泰國敏
一三〇五七	砂金	全南順天郡住巖面	同二十二日	福岡縣田川郡添田町 緒內正次
一三〇五八	金銀鉛鑛	咸南永興郡鎭坪面、古寧面	同	元山府銘石洞 代表者 金浩鉉、永興郡鎭坪面 黃成華、同 李贊球
一三〇五九	金銀鑛	同高原郡水洞面、永興郡橫川面	同	元山府銘石洞 金浩鉉
一三〇六〇	同	忠南洪城郡高道面	同	兵庫縣武庫郡本山村 堀田正一
一三〇六一	同	忠北淸州郡四州面、江西面、南二面	同	開城府南本町 朴尙玉
一三〇六二	同	同永同郡上村面	同	京城府漢江通 代表者 荒井初太郞、同岡崎町 石黑淸治
一三〇六三	同	平北寧邊郡北新峴面、泰平面	同	寧邊郡泰平面 代表者 白洛灝、同 鄭觀華
一三〇六四	同	慶北安東郡吉安面、義城郡玉山面	同	京城府御成町 元胤洙
一三〇六五	同	咸南安邊郡新茅面	同廿三日	元山府海岸通 代表者 長島巖、安邊郡新茅面 姜□權、咸興府萬歲町 韓基邦
一三〇六六	金銀銅鉛亞鉛鑛	慶北尙州郡洛東面	同	東京市神田區神保町 內外鑛業株式會社
一三〇六七	同	同尙州邑	同	同
一三〇六八	同	同外西面	同	同
一三〇六九	同	同	同	同
一三〇七〇	同	同外西面	同	同
一三〇七一	同	同尙州邑外西面內西面	同	同
一三〇七二	同	同靑里面	同	同
一三〇七三	同	同洛東面	同	同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三一七	江原麟蹄郡北面	五月十六日	京城府岡崎町 吉田喜代藏
一一五二九	全羅順天郡順天邑西面	同 八日	同南大門通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代表者、順天郡西面 任泰攸
一一八七二	平南平原郡肅川面、東松面檢山面朝雲面	同	京城府桂洞町 孫晉哉
九三七七	忠南天安郡北面	同十九日	同古市町 朝鮮砂金鑛業株式會社
三〇一三	江原平康郡楡津面	同二十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日本鑛業株式會社
六五五六	江原金化郡遠北面	同	同西大門町 金相彦
一〇一〇六	慶北奉化郡春陽面	同廿一日	釜山府大倉町 代表者 岡崎英三郞、同寶水町 渡邊千代三
八五七六	咸南豐山郡安水面	同	新興郡東古川面 代表者 玄昇鎭、同東上面 陳元吉
一一九八三	同洪原郡龍泉面	同	長津郡新南面 白榮杰
一〇一六五	忠南保寧郡川北面	同廿二日	東京府北多摩郡武藏野町 代表者 田中八郞、洪城郡廣川面 田村武彦

◇鑛業代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九九八三	忠南洪城郡東面	尹牧九	洪城郡洪東面朴其東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一日屆出
一二七八	平北熙川郡南面	藤田鑛業株式會社	熙川郡南面翁巖山鑛山事務所小原信人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二日屆出
九七一三	慶南咸安郡餘航面	昭和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岩尾信榮을解任咸安郡餘航面伊藤部重太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二日屆出
一二八九七	江原金化郡西面	洪鋼晉	京城府鍾路李範澤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三日屆出
一一八四七	同通川郡歙谷面	崔汝均	鑛業代理人申順用을解任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三日屆出
九七四五、九七四六	咸北穩城郡美浦面、穩城面、同美浦面	豐仁採炭株式會社	鑛業代理人山田正一을解任穩城郡穩城面前田篤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五日屆出
一〇一四、一六二二、一六六六、一六九四、三七一七	咸北富寧郡富寧面、同靑岩面、同石幕面、同石幕面、富寧面	三菱鑛業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鈴木一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五日屆出
一〇五四七、一一六一二、一〇九六三	咸南高原郡水洞面、同山谷面、同水洞面	住友合資會社	鑛業代理人今澤義重을解任高原郡水洞面平山富一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五日屆出
九八八四	京畿江華郡吉祥面佛恩面	田榮植	京城府新設町金昌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六日屆出
一一八三八	江原春川郡新北面	趙玉顯	同明倫町金俊禹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十七日屆出

黃昏 (113)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사랑을넘어서(九)

때고 보니 편지의 사연은 이러하엿다ㅡ

「선생님!

나는 멀리 갑니다。다시 찻지말아 주십시요。

떠나라는 생각은 발서 오래전부터엿습니다。아무말업시 떠나버리라고도 하엿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너무비겁한짓갓해서 저의 태도만을 약간표명하엿든것입니다。그날밤 지가 선생님 한테 취한 태도는 선생님께 대한 저의 마지막 인사엿습니다。울어도우서도 씨연치안흘때에는 독사가티 독해지는것이 오히려낫지 안흘던지요?

선생님!

저는 선생을 사랑하지 안습니다。좀더 자세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안호려는 것입니다。무슨 모순된 말이냐고요?……그러나 그러치 안습니다。모순되고모순되지 아헛고간에 이것은지금의 저의 거짓업는 심경입니다。에누리업는 고백입니다。

물론 후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겟지요。그때에 선생의 입으로도『네가 그때에 취한 행동은 과연 올핫다』할 시는 말이 나올만치 그만치 저는 지금부터새사람으로서의 출발을 시작하려합니다。저도 선생을 새사람으로 대할만치 그러케 되어지이다……하고 빌고기대합니다。

기뻐해 주십시요。채한 일이라고 무흠을 쳐주십시요。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그러나 하기 어려운 일을 몸소 해보는 쾌감이어찌 업사오릿까?

마지막으로 저는 바랍니다。아프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난것 가튼 우리들이 되는 동시에 만나도 만나지못한것 가튼 그러한 먼거리의 사람이 되지 안키를 그윽히 기원하고 잇습니다。떠날시간이 촉급해서 라필이되옵고 말의 두서가 서자못하엿사오니 눌러 보아주십시요

서울을 떠나며 R·S

선생님도 언제든지 리해해주시리라고 저는 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맘이 괴로우실 것입니다。오직 이것을 해결 하는것은 시간과 의지가 잇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리고 시간이 옮기는 사이에 그러고 스스로 마음을 굿게 가지는 때에 그괴롬은 해소될것입니다。그때는 몸과맘이 함께 가뿐하실것입니다。

하루바삐 맑고 개벼운 기분으로 돌아가 주십시요。저도 될수잇는대루 속히 그러한 셥경에 되고 십습니다。

물론 그러케 되겟지요。안되는날까지는 제몸에 스스로 매를 내리기를 잇지안흘것이니까요……

이번에 지가 취한 행동은선생의 신상을 위하는 동시에저의 전도를 위해서입니다。나는 오직 그길뿐이라고 미더 의심치 안습니다。

선생님은 너의 행동은너를 지게하는 동시에 나를 지게하는것이다ㅡ……이러케 또 꾸짓고 비우스시겟지요 그러나 쳣다고 생각할 필요는 업슬것입니다 이겻다고 생각하는것이 올흘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웃는 사람이라니까 압날을 두고보기로 하지요

…………

경재는 자기를 이즈듯이 열심히 두번 거듭 편지를 읽어보앗다。

분명히는 잡을수 업섯스나그것은 하여간 그가 무슨 새결심을 가지게된것만은 사실인듯하엿다

일종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인것 갓기도 하고 또한편 지나치게 자기를 독려하는 소리인것 갓기도 하엿스나 그리면서도 그 보기드문 강렬한 개성을 노치는것은 더할수업시 아수한 일인것 갓기도 하엿다。

사랑은 그의뜻대루 해소해버려도 무방할것이다。그러나 한번만이라도 다시만나서 그보다 더 참스럽고 갑잇는 말을 해볼수 업슬가?……그는 이러케 생각하엿다。

『대체 어디로 갓슬가? 시굴갓슬가? 서울에 잇슬가?』

그는 미다지 박그로 내다보이는 한울에 저혼자의 공상을 그려가며 그공상에 홀로 이러케 브르지젓다。

그리다가 그는

『이따먼어리가 삽시에 한방으로 줄어들엇스면……』

하고 생각하엿다。

그리면 려순이도 물론 그방안에 잇슬것이 아닌가!

그는 무거운생각에 차차지기를 잇기시작하엿다。